

---

第80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財務經濟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1995年9月21日(木) 午後2時

場所 財務經濟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懸案業務報告(企劃管理室)
  2.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 

審査된案件

○報告事項 ...2面

1. 懸案業務報告(企劃管理室) ... 3面
  2.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74面
  3.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74面
- 

(14時 08分 開議)

○委員長 文錫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0回 臨時會 第1次 財務經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과 關聯公務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市政質疑를 통해서 市政에 대한 여러 가지 質問과 答辯을 듣고, 오늘 다시 常任委員會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오늘과 내일 두차례 會議를 갖고 所管 部署에 대한 懸案 業務報告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議長으로부터 우리 委員會에 回附된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外에 2件的 案件과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論議되었던 行政事務調查計劃採擇의 件을 建議한 뒤에 다음週 火曜日に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에 대한 現場訪問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委員會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원만히 잘할 수 있도록 協助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事項

(14時 09分)

○委員長 文錫珍; 먼저 議事日程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會室 朴宣永; 專門委員會室 朴宣永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第79回 臨時會 閉會期間 中 우리 委員會 市金庫制度改善小委員會가 95年 9月 4日과 9月 15日 두차례에 걸쳐 있었으며,

95年 9月 12日에는 市金庫 制度改善과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行政事務調查에 대한 討論會가 있었습니다.

95年 9月 15日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外 2件이 提出되어 95年 9月 16日 議長으로부터 우리 委員會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95年 9月 11日 京畿道 儀旺市 內蓀2洞 643의 13  
백복석으로부터 農水産物都賣市場 內 通路를 確保해 달라는  
陳情書를 接受하여 95年 9月 15日 서울特別市長에게 移牒  
處理하고, 陳情人에게 內容을 回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

## 1. 懸案業務報告(企劃管理室)

(14時 11分)

○委員長 文錫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企劃管理室 懸案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  
다.

(議事棒 3打)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懸案業務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報告에 앞서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  
다.

존경하는 文錫珍 委員長님 그리고 財務經濟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오늘 여러 委員님을 다시 뵙고 우리 企劃管理室所管  
懸案業務를 報告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에서는 民選時代, 自治時代를 맞이해서 市民이 市  
政의 중심이 되고, 市民便益이 모든 價値 판단의 척도가 되는  
市民을 위한 市政을 펼쳐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努力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市長님께서 밝히신 일곱 가지 市政의 基本方向에 따  
라서 이를 細部事業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作業을 하고 있습  
니다. 各界專門家들이 參與하는 바른市政企劃團을 構成해서

현재 實行計劃을 樹立 中에 있습니다. 이 計劃을 樹立하는 過程에서 議會에 미리 報告도 드리고 協議도 함으로써 議員님 여러분의 高見이 反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今年末까지 이 市政運營 3個年計劃을 完成해서 議會와 市民들에게 公開할 예정이며, 내년도 豫算編成에서부터 적극 反映해서 事業을 推進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首都 서울이 大都市로서의 특수성이 認定되고, 自治能力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特別法을 制定하는 데 있어서 여러 委員님들과 긴밀히 協議해서 推進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指導와 協助를 부탁드립니다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主要 懸案業務는 配付해 드린 油印物에 의해서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

기획관리실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油印物에 의해서 懸案事項에 대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錫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 여러분의 質疑 그리고 執行部の 答辯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質疑 있으신 委員 여러분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勝建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金勝建 委員; 金勝建 委員입니다.

사실 계속 지난 달에도 臨時會가 있었고, 또 다음 달, 그 다음에 定期會까지 여러 가지가 겹쳐서 계속 市議會에 너무 執行部에서 일을 많이 뺏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먼저 質問할 것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있었던 本會議 市政 質疑에서 나온 것 中에서 좀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執行部 答辯할 때 政策評價會議라는 單語가 몇 번 나왔습니다.

政策評價會議에서 決定한다, 政策評價會議에서 決定한다 그랬는데, 政策評價會議,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서울市政企劃團, 이런 것 같은 것이 제가 보기에 組織表에 恒時組織이 아닌 에드혹 커미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간에 正式 體制上에 나오지 않는 이런 委員會가 도대체 몇 個나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갖고……. 그것은 書面으로 나중에 答辯해 줘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政策評價會議 이것이 恒時的으로 構成되어 있는 것인지, 事案에 따라서 바뀌는 것인지? 그 構成員이 어떤 것인지? 政策評價會議의 構成員과 최근 한 1年 동안에 政策評價會議에서 決定됐던 事項들을 알려주시면 市政을 理解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時間을 좀 가지시고 다음 번에 主要業務報告 때 넣어주셔도 상관 없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에드혹 커미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음 번에는 報告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 제가 역시 地域區 出身 委員이라 豫算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에 보면 補償事業이 나

오는데, 補償事業 中에서 補償完了가 19個 事業, 協議補償이 75個, 그 다음 都市計劃施設 變更이 22個, 이렇게 總 해서 133個 事業이 있다. 이렇게 報告를 하였고, 그 中에서 都市計劃施設 變更 決定이 冠岳路事業 등 해서 22個다 그러는데, 이 都市計劃施設 變更의 主體權, 決定主體權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變更 發生事由가 주로 어떤 事由에 의해서 變更이 發生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廢止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누가 決定權을 行使하는지?

그리고 일부 國家에서 使用하는 日沒法에 해당하는 것, Sunset Law에 해당되는 概念에 의해서 어느 정도 事業이 어느 特定期間 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廢止되는 그런 概念들도 있는데, 과연 우리 서울市에서는 지금 이런 問題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施設變更 決定이 난 것들에 대한 處理를 어떻게 하는지? 누가 決定하는지? 또 어떤 發生事由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趙淳 市長님께서 答辯하시면서 機構改編, 이 機構改編은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계속 앞으로 필요한 일인데, 그러면서 앞으로 專門人力이 더 필요한 定策部署나 이런 데는 역시 增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內部統制를 주로 했던 監査要員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減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저도 全的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中長期計劃,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人力 需要에 대한 中長期計劃을 갖고 계신지? 없다면 構成할 用意는 없는지? 이 問題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100% 理解를 못한 부분인데요, 서울特別法이요. 서울特別市特別法. 이 概念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

에……. 제가 다음 臨時會나 그 다음 市政質疑 때 發言을 얻어서 좀 해 보려고 하지만, 차터制를 導入하자는 概念이 아닌가 하는 그런 概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에 저도 상당히 이 원뜻에 동감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 市議會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市議會도 지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活動費, 이것을 內務部令으로 決定할 수 있느냐, 우리가 條例로 決定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問題가 걸리는데, 서울特別法 制定에 저는 원칙적으로 贊成을 합니다, 또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서울特別市 市 執行部나 또 서울市議會 機能을 하는 서울市議會 議員들에 대한 그 規定도 아주 작게는, 저희한테는 작은 問題가 아니지만 議員活動費라든지 補佐官制度라든지 이런 概念들이, 이것도 서울시가 가져가야 되는 그런 概念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차터制의 概念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特別法 制定에 근본적으로 贊成을 하는데, 그 構成에 서울市議會 議員과 또 事務處와 기타 立法活動을 하는, 條例制定을 하는 이 分野에 대한 것을 포함할 생각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 委員長 文錫珍; 質疑하신 內容 中에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書面答辯을 要求하신 것입니까?

○ 金勝建 委員; 네, 定策評價會議는…….

○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아니, 제가…….

○ 委員長 文錫珍; 굳이 書面答辯이 아니라 여기서 들을 수 있으면 바로 質疑에 答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앉은 자리에서 答辯해 주십시오.

○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定策評價會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定策會議라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아마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定策會議라는 것은 여러 局에 걸리는 그런 事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 어느 한 局에서 決定하기에는 조금 미묘하고 벽찬 그런 問題를 안고 있는 그런 施策事業들을 單線的으로 그냥 系統에 따라서 그 該當課·局長, 또 該當 副市長, 市長 이렇게 決裁를 맡기보다는 關係 局長들과 關係 副市長이 같이 모여서 協議를 하면 충분한 檢討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 幹部들로만 構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市長님과 副市長님, 그리고 1級公務員, 그리고 定策企劃官, 財政企劃官, 그 다음에 그 案件에 관련되는 局長, 保社 關係 問題 같으면 保社環境局長이,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自治區의 區廳長, 또는 事業所長, 이렇게 構成이 되어서 市의 중요한 基本計劃이나 一般定策을 決定함에 있어서 여러 部署에 걸리거나 그 효과가 다수의 市民에게 미치는 경우 그 판단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內部的으로 運營하고 있는 內部 幹部會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94年度에는 22회에 걸쳐서 52건을 심의를 했고, 금년도에는 11회를 걸쳐서 9월 현재 24件을 審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聖水大橋 崩壞事故에 따른 賠償 方案을 檢討한다든가, 또 地下鐵 5號線 江南區間의 일부 路線變更 要因이 發生해서 그 變更 與否를 決定한다든가, 또 遊興酒店의 新規許可를 制限할 것인지 아니 할 것인지, 이런 것을 定策決定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案들이 審議가 됐습니다. 理解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都市計劃과 相關한 事項인데요, 都市計劃施設 決定權은 그 都市計劃의 施設內容에 따라서 區廳長에게 委任된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폭 20m 이하의 道路라든가 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式의 것도 있고, 서울市長에 決定權이 있는 것도 있고, 建設部長官이 아직 가지고 있는 用途地域이라든가 이런 것은…….

商業地域이다 住居地域이다 하는 것은 建設部에서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施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리고 廢止決定權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立案權은 區廳長이 가지고 있습니다, 立案權은. 廢止를 하든 決定을 하든. 다만, 2個 區 이상이 걸치는 그런 경우는 市長이 立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事業이 一定期間 未推進된 경우에, 저희들 같으면 당초 豫算을 編成해서 여러 가지 與件 變化가 심해서 도저히 事業執行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중도에 追更豫算 編成時에 사업을 變更하는 대부분 그런 節次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行政的인 責任을 물은 예는 없습니다만, 事業決定이나 執行過程에 잘못이 있어서 執行이 되지 않았다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한, 推進에 관련된 行政的인 責任도 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機構改編과 관련해서 현재 方向에 대해서는 市長님께서 자세하게 밝히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人力의 中長期計劃은 아직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交通問題라든가 또 環境問題라든가, 오늘도 安全關係에 대한 事業 檢討會議이 있었습시다만, 安全問題라든가 이런 分野에 대해서 지금 人力이, 또는 制度的으로 組織이 조금 미약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또 그 외에 機能이 조금 쇠퇴된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年末까지 종합적으로 機構改編은 어제 밝히신 方向에 따라서 檢討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條例 改正이라든가 여러 가지 議會에서 承認을 받아야 될 事項이 많기 때문에 미리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特別法 制定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시야가 좁아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自治權 問題를 論議하다보니까 아까 報告드린 그런 틀에서 檢討가 되고 있습니다. 檢討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檢討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金洪奎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金洪奎 委員; 金洪奎 委員입니다.

連日 企劃室長님을 비롯해서 關係公務員, 참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施行與否 再檢討事業 中에 地下空間 開發計劃과 廣津橋 擴張計劃은 현재 어느 方向으로 推進되고 있으며, 앞으로 再檢討를 한다면 어느 方向에서 再檢討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監査委員會制度 設置 運營에 관해서, 監査委員會制度 設置 運營에 대한 구체적인 方案은 무엇이며, 監査委員會 委員 構成時 公正性 確保方案은 무엇인지?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女性프라자 設置 運營 問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묻겠습니다.

서울女性프라자 設置 運營에 대한 구체적 規模와 豫算의 所要額은 얼마나 될 것이고, 運營의 主體는 또한 어디가 될 것인지? 또한 서울女性프라자의 구체적 事業內容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른市政企劃團 設置에 대하여서, 바른市政企劃團의 市

政企劃委員이 所管 局의 意見에 背馳되는 意見을 내 놓았을 때 既存 施行 中인 事業에 즉각 反映할 수 있는지의 與否, 따라서 바른 市政企劃團의 실질적인 權限은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金勝建 委員님께서 서울特別法 制定問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大韓民國의 首都인 서울에 千百萬 首都市民을 위한 서울特別法 制定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民選市長 出帆 後 서울의 제몫을 찾는다는 데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法的地位가 현재 國務總理 直屬에서 內務部長官 直屬으로 格下된 데 대하여서도 서울시에서 原狀回復을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 問題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央部處, 國會 등 關係部署와의 意見 調律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輿論의 共感帶는 어느 정도 造成되고 있는지? 서울시長 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特別法 制定을 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 問題는 우리 서울시議會와도 맞물려가는 問題이기 때문에 이 問題를 精確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同一한 것이……」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중복되는 質疑가 있으면 補充質疑를 먼저 같이 받아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金洪奎 委員님 그리고 金勝建 委員님 質疑하신 內容에 追加的으로 더 質疑하실 內容이 있으면 같이 함께 해 주십시오.

李延義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 李延義 委員; 李延義 委員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이 報告한 資料에 의하면 금년도에도 移越額이 3,000億원, 不用額이 3,000億원, 이것은 당초에 豫算編成 過程에서부터 問題가 있다는 것을 端的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豫算編成은 市 幹部들에 의해서 編成이 되고 있는데, 政府에서도 黨政協議會를 거쳐서 어떠한 調整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서울市에서도 黨政協議會 내지는 所屬 分科委員會와 事前協議를 거쳐서 編成하고, 調整하고 또는 分期別 또는 年間……. 當該年度 豫算編成에 따르는 協議를 거칠 용의가 없는지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市가 방대한 豫算을 運營하고 있는데 會計課長線에서 資金運用計劃까지 전부 統括하고 있다. 지금 大企業에서도 資金運用에 대해서는 엄청난 機構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會計課長 한 線에서, 그것도 요즘에 그 흔해빠진 電算 하나 없이 완전히 혼자서 손에 의해서, 또는 각 部署에 나가있는 資金이 工期遲延 내지는 變更, 이렇게 됨으로 해서 돈이 썩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運用計劃을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利子收入 내지는 活用計劃이 年間 수천억이 되는 그런 엄청난 損失을 市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會計課長 혼자서 線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資金運用 擔當課를 새로 新設하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科學的인 電算시스템 導入을 해서 運營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代案이 있는지 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른市政企劃團을 運營한다, 그리고 外部 專門家를 10名 정도 하신다 했는데, 과연 外部 專門家が 누구인지 묻고 싶고, 여기 지금 보니까 이 바른市政企劃團에 해당되는

局長들이 內務, 監査, 주로 內務와 財務에 해당되는 局長들이 해당되는데, 여기에도 우리 서울시議會 內務와 財務에 해당되는 議員들이 參與해서 바른市政을 企劃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어떤 代案이 없는지?

아울러서 서울特別法 制定에는 특히 國會와 가장 關聯되는 問題가 많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하고 싶어하는 것 中에서도 현재 地方自治에 걸맞는 모든 法이 제대로 안 되는 形式的인 議員에 불과하다 보니까 모든 問題에 걸림돌이 되어서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서울시가 겪고 있는 交通難 問題, 이것도 당장 결국 內務部의 警察에 넘어가 있는 法 때문에 전혀 꼭 해야 될 問題도 못하고 있다, 또 우리가 財源을 發掘하고 싶어도 결국 財務와 관련되는 法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 또는 都市計劃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싶어도 建設部에 걸리고 있다.

사실상 서울시의 가장 難題된 것들이 전부 中央部處와 관련되는데 特別法 制定에 있어서도 黨政間에, 가장 議會와 그 다음에 國會와 관계가 대두될텐데 여기에 어떤 方法으로 特別法을 制定하는 機構를 編成할 것이며, 거기에 우리 서울시議會가 特別法制定委員會에 적극적으로 參與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見解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다른 委員님들 質疑 없으시면 答辯을 듣도록 하지요, 중복되는 追加的인 그런 質疑를 하시려면 지금 하시고 다른 質疑事項이면 답변 들은 다음에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亮漢 委員; 李亮漢 委員입니다.

제가 뭐 아는 것은, 會計問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豫算問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建設部 2兆 4,000億원 中에 6,000億원이 未執行되어서 移越 3,000億원, 不用 3,000億원인데, 이 移越은 올해 事故移越되겠다는 얘가지요, 지금?

○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 李亮漢 委員; 그리고 不用 3,000億원은 전년도에서 넘어왔는데 올해 執行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아닙니다.

○ 李亮漢 委員; 계속…….

○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그 中에서 事故移越되어서 3,000億원 정도는 넘어가고 나머지 한 3,000億원 정도는 移越도 되지 않고 不用으로 넘어갈 것 같다는 展望…….

○ 李亮漢 委員; 전년도에서 事故移越이 重複 移越되기 때문에 또 不用額을 執行하는 것 아닙니까?

○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그런 부분도 있고, 전년도에 再移越이 許容되지 않으니까 물론 不用되는 경우도 있고, 금년에 事業이 완전히 着手가 못되어서 不用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李亮漢 委員; 用役費나 補償費나 工事費 전부가 저희가 不用額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매년 하다보면 繼續費的인 性質을 繼續費로 轉換해서 不用額을 處理하지 아니하고 계속비 성질로 올해부터 예산방영하는 것이 어떤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올해 不用處理했다가 내년에 또 예산을 잡아요, 그 金額을 똑같이. 그러면 매년 반복적인, 허수적인 서울市 豫算이 자꾸 잡힌다 이것이지요, 工事하지 않는 데 대해서. 물론 議會에서 좀 反對가 있을 것입니다, 繼續費로 하자 그러면 議會에서 豫算이 制限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허수적인 豫算을 쓰지 않았으면 좋

겠다. 우리가 一般經常經費라든지 一般經費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不用額 處理해서 내년엔 못쓰는, 不用處理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主要 建設工事 같은 것은 만약에 不用이 떨어진다면 그러면 서울시 企劃室 豫算課에서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豫算 그 자체를 設定할 때 1年度 內에도 예측 못하는 분이 3年, 4年을 어떻게 예측하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 工事に 대한 예측을 내년엔 移越될 것으로 계속된다면 繼續 費制를 導入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울시가 많은 豫算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매년 할 때 보면 몇 兆, 몇 兆 하면서 허수가 한 2兆원 내지 3兆원 올라가는데 그 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議員도 責任져야 되고 執行部도 責任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制度의 改善을 좀 부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서울 特別市 特別法에 관한 것인데, 저는 特別法이 뭔가 잘 모르겠어요. 特別法 位置가 어느 정도에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것을 읽어보니까 法이 아니고 特別法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서울시長님이 일을 하는데 地自制上의 特例, 財政上의 特例, 運營上의 特例, 내 일하는데 편하게 좀 해 달라 이런 뜻이지, 제가 느낄 때 서울시가 독자적인 自治制를 하자는 뜻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것. 그러니까 議會問題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特例上을 본다고 그러면. 그러면 진짜 서울특별법이 아니고 서울시自治法이라든지 서울시法이라든지 이런 確定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남이 볼 때는 굉장히 서울시가 自治的으로 해 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內容을 보면 서울시가 自治가 아니고 內務部長官에서 總理로 格上하면서 이러 이런 特例만 좀 봐 달라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이 그런 것인지, 진짜 自治制를 하

고 싶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우선 세 분 質疑에 대해서…….

(「거기에 한 가지만 더……」하는 委員 있음)

계속적으로 補充質疑하시겠습니까?

(「네」하는 委員 있음)

네.

○黃仁明 委員; 黃仁明 委員입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시에서 25個 區廳長이 會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建議한 內容 中에 한 가지가 區廳長의 현재 職級을 理事官에서 次官級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千百萬 서울시를 管掌하는 民選市長은 현재 흔히 우리가 일컬어지기를 長官級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格上, 이런 문제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梁敬淑 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梁敬淑 委員; 바른市政企劃團하고 서울시特別法에 대해서 좀 물을 겸 제 意見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른市政企劃團에서 주요 檢討課題를 보면 市政 全般에 걸친 問題點을 담고 있는데, 그 동안에 바른市政企劃團의 活動 進步狀況과 또 會議體系, 그리고 課題別로 參與하는 外部 專門家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고요.

특히 主要 檢討課題가 있는데 都市基本計劃의 補完이나 發展에서는 自治區의 意見이 좀 反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自治區의 의견을 收斂할 通路를 가

지고 이 부분을 進行시키고 있는지, 進歩시키고 있는지, 또 計劃을 잡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方式으로 自治區의 意見을 收斂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自治區의 意見을 收斂하는 過程에서 서울市의 立場과 自治區의 立場이 다를 수도 있고 또 中央政府와 서울市의 立場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어떻게 調整을 할 생각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行政機構設置條例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行政機構와 定員基準등에 關한 規程, 이런 부분들이 大統領令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行政機構設置條例는 大統領令으로 정해져 있다가 條例로 바뀌었기는 했지만, 사실 이러한 規定에 의하면 서울市가 自治權 強化를 主張은 하고 있지만 構造的으로는 中央政府가 서울市를 계속적으로 장악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현실이고요. 그리고 또 서울市 行政特例에 關한 法律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자체가 上位法에 의해서 調整이 되고 있기 때문에 規程에 불과한 형편인데, 지금 서울市가 95年度 12月까지 市政運營 3個年 基本計劃을 完成하겠다고 하고 있고 서울特別法을 制定한다고 하는데, 저는 時期가 굉장히 늦다고 생각합니다. 改革의 속도나 그 水準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속도는 늦고 수준도 낮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定期國會가 열리고 있는데 올해 定期國會에서 이 법이 通過되지 못한다면 그 그러면 사실상 내년에는 總選 局面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狀態에서 市長의 任期가 3年인데, 그러면 12月까지 이 법을 通過시키지 못한다면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6個月, 6個月이 지나면 總選 局面이라서 별로 관심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大選이고. 이런 狀況에서 적

어도 10月까지는 이런 法이라든지 또 方向, 앞으로 그 3年에 대한 方向이 10月까지는 적어도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 立場 속에서 보면 市政質問에서 市長이 반성보다는 法令이나 豫算이나 人力難, 이런 外的條件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렵다라고 변명을 하고 계신데, 民選市長이 市民들의 삶의 質을 向上시키고 市政을 發展시키려면 中央政府하고 한편으로는 協力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鬭爭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市議會 議員들과의 協力도 앞으로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해지고, 公務員들과의 호흡을 맞추는 부분도 정말 渾然一體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對處를 못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서울市議員들도 中央政府나 現 正權이 서울市에 대해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議員들마저도요.

그런데 서울市가 組織과 人事制度에 많은 問題點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本廳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本廳 職員들간에도 노는 사람은 매일 와서 그냥 놀고, 일하는 사람은 徹夜 殘業까지 해서 늦게까지 일하고, 또 어떤 部署는 일이 너무 과다하게 많아서 너무 지치는가 하면, 어떤 部署는 그냥 사인만 딱딱 하면 일이 끝나는 그런 部署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그리고 그 동안에는 사실 上官에게 잘 보일 필요도 별로 없고, 연줄이라든지 地域緣故라든지 學緣이라든지 이런 形態로 해서 昇進되는 그런 行政이었기 때문에 자세의 轉換이 썩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構造的인 問題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能力이라든지 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昇進을 하는 그런 客觀的 評價가 民選市長이 됐으니까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 公務員 內部에서도 나오는 얘기이고, 또 우리들이 판단할 때도 열심히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눈총을 받고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좀 너무 잘난척한다든지, 자기 혼자서 일하는 사람이나든지 이런 風土 자체가 改善되지 않고서는 이런 3個年計劃을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다, 어떻게 推進하겠다라고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說得力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構造改編이나 人事改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러한 方案으로 하나를 좀 提案하고 싶은 것은, 매년 서울시 公務員들에 대해서 人事考課를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A點數를 받은 사람과 B點數를 맞은 사람과 C點數를 맞은 사람 어떻게 分類하고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면 정말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文書を 生産하고 있는지를 點檢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年동안 考課點數에 A를 맞은 사람이 과연 몇 個의 文書を 生産했는지, 企劃案도 좋고 研究한 業績도 좋고, 그리고 支出을 要求하는 결의서도 좋고, 이런 부분을 다 모두 파악해서 적어도……. 그러면 그것도 局이나 課別로도 꼭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公務員이 계시지만, 企劃管理室에 있는 모든 개개인들이 1年 동안 무엇을 했는지 文書臺帳 寫本을 내놓아 보라고 하면 다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도 수십건을 處理하는 어떤 사람이나 部署가 있는가 하면, 한 달이 가도 몇 個밖에 處理하지 않는 部署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部署나 사람에 대해서는

昇進도 시켜주고 發展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1年 내내 또는 한 달 내내 거의일을 하지 않는 部署는 없앨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科學的인 基準을 가지고 이 부분이……. 그러나 이것은 지금 時間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點檢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梁委員님, 우리가 質疑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梁敬淑 委員; 아니, 質問도 좀…….

○委員長 文錫珍; 별도의 質疑는 나중에 答辯을 들은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委員님들이 質疑를 하신 內容들을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特別法에 대한 부분하고 바른市政企劃團에 대해서 공통되게 갖고 있는 質疑事項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꺼번에 質疑를 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梁敬淑 委員; 아니, 저는 바른市政企劃團에서 하는 일을 제가 물어볼 겸 意見을 낸 것이거든요.

○委員長 文錫珍; 일단 答辯을 듣고나서 追加的으로 質疑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중복되는 質疑하고 관련되지 않는, 아니면 오늘 懸案業務하고 관련이 되지 않는 다른 質疑에 대해서는 答辯을 듣고나서 하도록 이렇게 運營을 하겠습니다.

일단 室長님께서 答辯해 주시고요, 제가 부족된 事項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챙겨서 다시 質疑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알겠습니다.

먼저 金洪奎 委員께서 質疑하신 事項에 대해서는 92年 10월에 內部的으로 方針을 決定해서 汝矣島廣場을 地下에 여러

가지 開發을 해서 하나의 名所化하자 하는 趣旨로 內部的으로 計劃을 推進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公聽會까지 開催를 하고 準備를 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그 事業 所要豫算도 과다하게 들고 그 成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고 해서 再檢討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事業推進이 일단은 保留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廣津橋는 여러 가지 論議가 많았습니다만, 현재 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2車線 橋梁이었습니다. 2車線 橋梁이었는데 이것을 4車線으로 하기로 하고, 앞으로 投資計劃을 樹立해서 廣津橋는 施設하는 것으로 그렇게 檢討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監査委員會制度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監査院에 監査委員會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市の 경우에는 監査室에서 職員들이 區廳이나 事業所나 市 本廳에 여러 가지 監査를 해서 그 監査結果를 該當 課에서 대개 監査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評價를 해서 懲戒要求를 하고, 懲戒委員會를 열어서 懲戒處分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懲戒處分이 적정성을 缺할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趣旨에서 監査院의 監査委員會制度和 類似한 委員會를 하나 만들어서 監査 量定을 적정하게 審議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發展的인 次元에서 法曹人이라든가, 또 우리 監査라는 것이 會計關係에 많으니까 公認會計士라든가, 또 技術分野에 대한 監査도 있고 해서 技術士, 3級 이상 公務員, 이런 분들로 하는 委員會라는 것을 만들어서 監査結果에 대한 檢討를 해서 그 處分 要求事項에 대한 審査를 事前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한번 發

전시켜 보겠다는 것이지 현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女性프라자 問題도, 이것을 내년부터 女性프라자를 運營하는 段階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運營主體라든가 구체적인 內容까지는 아직 確定된 것도 아니고 해서 다만, 女性 政策에 있어서 女性の 社會 參與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提起와 거기에 대한 檢討를 하고 있는 段階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市政企劃團에 대해서 質問을 주셨습니다. 梁敬淑 委員님도 물으셨고 했습니다.

이 市政企劃團이라는 것은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3年 동안의 事業計劃을 作成하고, 또 市政의 主要 運營과 관련한 改革을 推進하는데 있어서 諮問을 하고, 또 새로운 創案을 하고 있는 支援을 하는 것을 주된 業務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최종 論議가 되고 案이 決定된다 하더라도 우리 豫算에 編成하고 事業을 確定하는 것은 內部的으로 다시 市長님 方針을 받는 過程에서 確定되어야 될 것이고, 이 委員會에서 決定하는 權限은 다만 그 案을 만든다 하는 그런 機能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所管 局과 意見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다시 우리가……. 그분들의 意見을 參考하는 것이지 그것에 구속이 되어서 決定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延義 委員; 그것이 언제 發足됐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8月 25日, 바로 얼마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市長님이 오셔서 市政 運營計劃을 樹立하는 過程에서 이런 專門家 意見을 듣고 內部와 같이 作業을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構成을 했습니다.

○李延義 委員; 그럼 지금도 금년도 내년 豫算編成에 여기에

서 意見이 많이 反映 나왔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지금 각 局에서 일단 案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實務局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그것을 우리 市政企劃團과 實務局·課長과 같이 會議를 통해서 檢討를 합니다. 할 때 이분들이 外國의 事例라든가 좀더 나은 方案에 대해서 問題 提示를 하고, 그것을 또 같이 檢討를 하고 해서 여과를 하는 그런 過程을 이 委員會에서 갖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1次的으로 環境分野라든가 交通分野에 관한 會議를 하고, 아까도 제가 說明을 잠시 드렸습시다만, 安全關係 會議를 했습시다만 아주 좋은 意見을 많이 提示를 해서 크게 參考가 되고 있습니다.

外部 專門家は 별도로 나중에 委員에 대한 名單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로 大學校 教授 또는 研究所의 研究院 院長, 예를 들어서 交通環境研究院 또 市政開發研究院 이런 데 院長이나 또 部長級 研究員, 大學校 教授, 그리고 社會參與 問題와 관련해서 YMCA 市民社會開發部長, 또 言論社의 局長級, 이런 분들로 構成이 됐습니다. 열한 분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構成을 마쳤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8月 25日 마쳐서 지금 運營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特別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特別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市の 自律性이라고 할까 首都로서의 특수성을 많이 認定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所屬이 內務部長官이나 國務總理나 하는 것은 사실상 큰 意味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일응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問題를 포함해서 한번 檢討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中央部處와는 아직 意見을 나누어 본 段階는 아닙니다. 아니고, 1次的으로 우리 市議會 常任委員會 常任委員長을 전부모시고 아침 朝餐懇談會를 한번 開催하면서 市の 推進方向과 協助를 구한 바 있고 또 오늘 財務委員會에서 제가 報告를 올렸습시다만, 1次的으로 議會 次元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 出身 國會議員들에게 우리 立場을 밝히고 協助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서울 出身 國會議員 中에서 새정치국민회의 所屬 國會議員 열여덟 분을 모시고, 그 中에 세 분이 사정에 의해서 나오시지 못했습니다만, 市政에 대한 懸案財政與件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서울特別法에 관한 說明을 드렸습니다. 마침 金槿泰 副總裁께서 地方自治 問題를 擔當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나오셔서 資料에 대해서 서로 協助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支援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民自黨 또 民主黨 등 서울 出身 國會議員과 계속해서 懇談會를 가지면서 이 問題에 대한 적극적인 協助를 당부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區廳長들과 조찬간담회를 네 차례에 걸쳐서 圈域別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 때도 區廳에서도 적극적으로 輿論造成하고 協助해 줄 것을 當付한 바 있고, 區廳長協議會에서도 앞장서서 이 問題를 通過시키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당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정도의 輿論 造成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그 過程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意見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收斂해서 적어도 10月 中에는 案을 만들 생각입니다.

아까 梁敬淑 委員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指摘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時期의 촉박성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이번 定期國會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政府에서 提案한 法案이 200餘件 되고 있습니다, 이번 國會에서 處理되어야 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負擔이 많고 해서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앞으로 政府와의 意見 調律問題 이런 것들이 빠른 時日 안에 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가능한 그런 過程을 여러, 우리 議會 또는 서울 出身 國會議員님들의 힘을 모아서 打開를 하겠지만, 금년 定期國會에 提案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實務的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運營 3個年計劃은 이 問題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市長님의 市政運營프로그램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마련을 해서 내년도 事業은 내년도 豫算에 反映을 하고, 내후년, 그 다음해까지의 事業에 대해서는 靑寫眞을 年初에 發表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組織問題에 관련해서는 梁敬淑 委員께서 아주 적절하게 指摘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일이 많고 처지는 部署도 있고, 조금은 상대적으로 한 가한 部署도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組織에 대한 診斷을 하고 있습니다. 組織診斷을 하고, 또 새로운 時代與件 變化에 따라서, 아까 市長님께서 밝히신 組織改編 方向에 대해서 說明을 드렸습시다만, 그런 方向에 따라서 이것은 改編을 하면 염려해 주신 노는 部署, 일하는 部署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自治區와 輿論 收斂하는 通路는, 저희들이 自治區 業務를 指導하는 部署가 內務局 行政課입니다.

그래서 이 行政課를 통해서 自治區에서는 모든 意見들이 收斂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自治區의 主要한 業務處理 實績이라든가 主要한 行事 이런 것들이 報告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各種 集團民願이라든가 또 해야 될 事業 이런 것들도 自治區에서 전부 收斂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區廳長 懇談會 때도 많은 意見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行政課에서 整理를 해서 각 局長과 한번 討論會를 가지고 市長님께 報告를 드려서 反映할 부분 또 反映할 수 없는 부분 이것을 整理할 생각입니다만, 自治區와의 意見은 충분히 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豫算編成 過程에서는 市議會 常任委員會에서 평소에 많은 指摘과 指導와 또 提案 이런 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각 局을 통해서 豫算編成하는데 크게 反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豫算을 編成하더라도 議會뿐 아니고 또 각 區의 意見,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收斂을 해나가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 市民 전체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方向으로 豫算編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지금 答辯하신 內容 中에서 質疑했는데도 答辯이 안 된 內容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마지막에 言及된 事項이 실질적으로 거의 되어지지 않은 事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졌는데, 과연 常任委하고 예산에 대한 反映이 충분히 원활하게 論議되어서 豫算에 反映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制度와 豫算編成의 時期,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지금 室長께서 얘기하신 대로 常任委하고 충분히 豫算에 反映할 수 있는…….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소에 常任委를 통해서 論議된 여러 案들이 각 局에 收斂이 되어서 각 局에서 豫算編成할 때 反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그런 趣旨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지금 우리가 바른市政企劃團이나 特別法 制定에 대한 問題 根底에는 어떠한 정신이 있느냐고 하면, 우리가 서울시議會라고 하는 市民의 代表機關이 있기 때문에 서울市民을 상대로 해서 事業을 執行해야 될 執行部の 豫算도 분명하게 단순히 審議하는 次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豫算編成 過程에서부터 일정한 채널을 통해서 反映될 수 있는 機構를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問題 提起입니다. 앞으로 바른市政企劃團에서도 여러 가지 活動을 하시겠고, 또 서울特別法을 制定하는, 自治權을 強化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法律 制定 推進이 있겠지만 지금 李延義 委員이 提起하신 問題 中에 하나는, 政府가 黨政協議를 하듯이 우리 서울市도 黨政協議會와 비슷하게 우리 常任委와 함께 어떤 問題에 대해서 豫算을 먼저 策定하기 전에 論議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答辯이 없으셨고, 또 機構에 대한 問題를 가지고 會計課長이 豫算에 대한 資金運用을 總括하고 있는데 이러한 方式이 결코 科學的이고 現代的이지 못하기 때문에 資金運用에 대한 별도의 課를 新設할 計劃을 잡아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事項에 대해서도 言及을 해 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事項과 함께 또 黃仁明 委員께서 오늘 아침에 얘기됐다고 하는 區廳長, 市長의 職級에 있어서의 상징성, 이런 부분에 대한 質問도 있으셨는데, 機構와 人事에 대한 問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答辯을 마저 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區廳長 職級 이 관계는, 사실은 市長, 區廳長, 이 團體長은 民選이고 政務職으로서 一般職公務員과 같은 階級을 정하는 것은 현재 規定에 없습니다. 다만, 俸給 수준이 어느 수준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理事官級이다 또는 長官級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수준으로 俸給을 決定하고 뭐 어떤 待遇를 하고 하는 問題는 서울시 次元의 問題라기보다는 全國的인 自治團體長의 位相, 待遇問題와 관련된 事項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색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좀 理解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豫算編成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 말씀을 드렸습니 다만, 編成하는 過程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方法을 통해서 意見을 收斂하는 그런 方法을 취하고 하는 것이 現行 制度의 범위 내에서 編成하는 過程이 그렇게……. 制度的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을 理解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대한 意見이 反映되는, 평소에 民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指摘한 事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整理가 되어서 追更時에나 또 다음해 豫算編成 때 反映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審議過程에서도 그런 여유는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李亮漢 委員께서 말씀하신 事項도 제가 빠뜨렸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指摘을 해 주셨고, 또 議會에서도 그 質問 때 제가 그렇게 答辯을 올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指摘해 주신 대로 내년 豫算부터는 繼續費라든가 明示移越制度 같은 것을 擴大 活用을 해서 가능한한이면 當該年度 것이 不用處理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延義 委員; 答辯이 좀…….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아, 會計關係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제 所管은 아니고 해서, 財務局所管인데요…….

○委員長 文錫珍; 機構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李延義 委員; 機構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機構.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런 問題는 財務局의 意見을 收斂해서, 사실 그 資金運用에 관해서 별도의 機構가 필요한지, 現行 會計課所管 事項 中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좀 格을 높인 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方針 決定을 해서 새로운 資源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方案을 講究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종합적인 組織改編 때 意見을 받아서 檢討를 해 보겠습니다.

○李延義 委員; 지금 答辯을 우물우물하시는데, 바른 市政企劃團도 여기 보면 課題別 問題點 診斷, 推進施策 開發 支援, 計劃의 적정성 檢討 確定,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市民을 위한 企劃團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된다면 서울시 議員의 意思가 가장 먼저 反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專門家도 필요하지만 서울시 議員들 中에도 그런 專門家들이 많다 생각할 때에 企劃團에 서울시 議員들이 대거 參與할 수 있는 代案 提示,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豫算編成에 있어서 지금 企劃室長께서 答辯을 직접 할 수 없다손치더라도 이것을 市長께 報告를 올려서 追更豫算이라든가, 또는 本豫算이라든가, 또는 分期別 事業計劃이라든가 이런全般에 관한 어떤 協議體가 黨政間 있듯이 市議會와 協議體를 構成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答辯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못하면 언제까지 해서 그 결과를 얘기한다든가 확실한 答辯을 해야지, 지금 제가 本委員이 묻는 것

하고 지금 企劃室長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李延義 委員; 평소에 議員들이 각 地域에 일어난 事項들을 얘기해서 하는 것은 옛날부터 다 있는 얘기이고, 그것이 없다 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서울시가 資金運用計劃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다시피 이런 막대한 編成했던 計劃들이 이렇게 금방 保留하고 變更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막대한 人力과 資金, 期間, 時間浪費, 여러 가지 問題點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대로 서울시에 있는 職員들에 의해서 企劃團이 構成되고, 그대로 서울시에 의해서 豫算이 다시 編成되고 한다면 이것은 몹시 問題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本委員이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制度 범위 내에서 그렇고, 앞으로 豫算編成 過程에서 충분한 意見을 反映할 수 있는 機會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事전에 여러 系統을 통해서, 委員會 活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온 意見은 각 局別로 충분히 收斂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審議過程에서도 충분한 檢討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는 것을 理解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委員長으로서 제가 대신 質疑를 좀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委員長 文錫珍; 豫算을 효율적으로 審議하기 위해서 事전에, 豫算을 審議할 수 있는 期間이 아닌 事전에 審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을 講究해 보실 用意가 없으신지? 만약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짧은 時間에 豫算을 審議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不用額도 많고 또 事故移越도 많고 하는 이런 問題가 계속 發生이 되는데 이런 問題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分析과 檢討가 市議會하고 連繫해서 먼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豫算이 審議가 되려면 아직……. 이번에도 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豫算에 대한 事項이.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제대로 審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먼저 듭니다. 그래서 事前에 審議할 수 있는 方案을 한번 講究해 보실 用意가 없는지 제가 대신해서 質疑를 하고 싶습니다.

金勝建 委員님.

○金勝建 委員; 이 問題에 대해서 조금……. 제가 同僚委員들이시고 財務經濟委員會 所屬 先輩님들이신데, 한 가지 問題가 조금 看過되는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른바 中央政府에서 하는 立法權을 가지고 있고 條例權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豫算執行의 事前審議를 議會權을 가진 데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그것은 問題가 있습니다. 法的으로.

○委員長 文錫珍; 아, 金勝建 委員, 지금 얘기한 것은……. 제가 잠깐 얘기드릴게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또 執行을 審議하자는 것이 아니고 審議期間이 뒤로 밀쳐져 있기 때문에, 事前審議가 없기 때문에 좀더 단축해 보자, 그러니까 미리 당겨보자 이런 얘기이고, 그런 方案을 質疑한 것이고, 그 얘기는, 또 우리가 함께 檢討해야 될 事項이 뭐냐하면, 國家의 중요한 施策이나 豫算이 실질적으로 國民의 代表機構하

고 政府하고 協議되는 것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事項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重要課題나 事業에 대해서는 충분히 檢討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問題提起를 하신 것이고, 그러한 것을 일종의 우리가 立法府라든지 執行部라든지 이런 觀點에서 얘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金勝建 委員;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혹시나 速記錄이나 모든 것들이 다 歷史에 남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에 만에 하나라도 저희가 執行部の 固有權限에 대해서…….지난번 臨時會 때도 잠깐 제가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저는 저희가 어느 누구보다도 規則이나 條例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들었을 때에, 물론 委員長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事前審議라는 單語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데, 事前審議라는 말은 제가 생각할 때 速記錄에서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意見を 開陳하고, 또 擔當部署 뒤 豫算擔當官이나 財政企劃官이나 누구든 불러서 委員들이 미리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하는 것은 問題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事前審議라는 公式的인 機構를 통하는 協議會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대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用語變更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하여튼 뜻에 대해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執行部の 어떤 固有權限을 侵害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豫算에 대한 審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方案을 講究해 보는 것이 우리 議會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하신 內容 中에 豫算에 대한 事項에 대한 答

辯이, 우리 李亮漢 委員님도 아주 구체적으로 方案을 提示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럼 이번부터 실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答辯…….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렇습니다. 96年 豫算編成부터 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다른 質疑事項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金相男 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金相男 委員; 저는 세 가지만 質問하겠습니다.

이 質問이 우리 企劃管理室에 대한 적절한 質問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企劃管理室이 서울市の 모든 基本方向이라든가 앞으로의 市政에 대해서 가장 책임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세가지만 質問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기 再檢討事業 現況에 보면, 民間團體의 자율적 推進이 바람직한 事業으로 해서 西南權 農水産物都賣市場의 建設 運營을 民間團體에 자율 推進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기 油印物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可樂洞 農水産物都賣市場이 龍山市場을 移轉하는 바람에 雜市場化되어 있고, 그것이 都賣市場으로서의 機能에 상당히 問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施設 中인 九里 都賣市場이 빨리 開場을 하고, 그 다음이 西南權 都賣市場이 조속히 推進되어서 開場이 되어야 可樂洞市場의 기능도 회복할 수 있고 서울市民的 安定的인 農水産物 供給이 원활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民間人한테 꼭 推進되어야 되는 事由는 무엇이고, 또 이런 경우에 만약 이 推進이 遲延된다면 問題가 發生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여기 農水産物都賣市場이……. 이미 可樂洞市場을

서울市가 100% 갖고 있고, 거기 畜協도 서울市로 다시 移管 되게 되어 있고, 또 九里市場에 대해서도 25% 投資를 했고 하니까 西南圈 市場에 대해서도 서울市가 主體가 되어서 빨리 推進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에 대한 推進方案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우리 서울市立大學에 대해서 좀 여쭙볼까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하드웨어나 物質的인 發展에 너무 우리가 중점을 두다보니까 教育投資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 서울市立大學도 우리 서울市가 갖고 있는 教育機關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教育投資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지금 현재. 教授 숫자도 부족하고, 講義室도 부족하고, 각종 研究裝備가 절대적으로 다른 大學에 비해서 부족한 狀態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市立大學을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都市學이라든가 또는 環境問題, 都市行政, 交通問題 등을 중점적으로 研究하는 그러한 서울市의 大學으로 육성하면 상당히 서울市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나라 地方自治 發展에도 크게 寄與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면에서 내년부터 서울市立大學의 長短期 發展計劃 같은 것을 樹立해서 과감하게 投資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企劃管理室長님께서 좀 意見을 밝혀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셋째 問題는 지금 우리 서울市가 앞으로 國際都市 또는 文化都市로서 發展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投資를 많이 하겠다고 民選市長께서도 말씀하셨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어제부터인가 光州비엔날레가

아시아 최초의 現代美術展으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시작을 했는데 서울에서도 뭔가 國際的인, 세계적인 文化行事를 좀 치러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도 좋지만 좀더 스포츠를 벗어난 文化行事를 좀 했으면 하는데, 금년에 보면 西大門區廳하고 松坡區廳, 眞露流通이 主催를 해서 靑少年·어린이映畫祭를 했습니다. 이것이 비록 처음에 한 國際映畫祭이기 때문에 非競爭分野에 局限되었지만 이러한 靑少年映畫祭를 서울市에서 만약 主管한다면 상당히 많은 스폰서도 우리가 끌어들이 수 있고, 또 國際的인 名聲이라든가 位置도 금방 確立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市市에서 이러한 次元에서 靑少年·어린이映畫祭를, 한번 國際映畫祭를 開催하는 方案을 檢討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事項에 대해서 저의 質問을 마칩니다.

○委員長 文錫珍; 다른 質疑事項 없으십니까?

바로 答辯해 주시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答辯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西南圈 農水産物都賣市場 運營 改善 方案은 可樂洞 農水産物都賣市場의 여러 가지 問題點을 改善하는 方案을 檢討한 결과, 앞으로 開設되는 農水産物都賣市場은 公社보다는 다른 民間 形態로 하는 것이 더 經營效率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次元에서 發想이 됐습니다. 그래서 1次 한번 檢討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西南圈 農水産物都賣市場 建設問題 자체가 都市計劃施設決定을 變更하는 段階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江西 空港 가는 그 밑쪽에 免許試驗場이 있습니다, 自動車運轉免許試驗場이 있습니다. 運轉免許試驗場

그 아래쪽 부분에 한 3萬餘 坪 정했었는데 여러 가지 立地上 問題가 있어서 運轉免許試驗場 윗 쪽으로, 그러니까 空港路에서 富川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하고 南部循環道路하고 마주치는 그 코너편에서 運轉免許試驗場까지 일부 포함한 그런 地域으로 지금 變更하는 過程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變更하고, 都市計劃施設 決定과 또 補償, 設計, 工事 着工, 이런 過程을 거치려면 아직도 많은 時間이 所要되기 때문에 그냥 運營主體를 지금 미리 決定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우선 運營主體決定은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問題는 어떤 方案으로 하겠다는 것은 確定지은 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建設이 어느 정도 進陟이 되어 가면서 다른 外國의 事例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檢討해서 決定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相男 委員; 그럼 지금 현재 敷地 確定이나 이런 것이 안 됐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敷地는 이미 確定이 됐고 都市計劃決定 節次를 밟고 있습니다.

○金相男 委員; 그럼 지금 補償을 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아닙니다. 都市計劃施設 決定이 되어야 됩니다.

○金相男 委員; 돼야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施設 決定이 되어야지 補償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市立大學 問題는 어제 市長님께서 答辯을 하신 事項인데요, 指摘해 주신 그런 問題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定員이 209名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敎員 定員이. 이것은 大學設置基準수에 나와 있는 定員보다 한 160餘 명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니까 教育部에서 定員承認權이 있어서 教育部長官이 다른 國·公立大學과 均衡을 맞추기 위해서 定員 承認을 그렇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해 말부터 承認權이 定員에 관한 法律에 의해서 우리 自治團體長으로 委任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는 定員이 解決이 되었고, 教育研究費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확대해 나가서 서울學, 都市學 中心大學으로 發展시켜 나가겠다 하고 어제 市長님께서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金相男 委員; 저는 어제 會議에 參席을 안해서, 미안합니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것을 理解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相男 委員; 그럼 내년도 投資에 反映할 그런 計劃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래서 지금 大學에는 우리 市長님이 委員長이 되고 市立大學 總長님을 포함한 教育專門家, 이런 분들로 構成된 大學發展委員會라는 것을 構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事業計劃을 確定을 지으면 豫算反映을 할 생각으로 있고, 大學 자체에서도 市立大學發展委員會라는 것을 또 만들었습니다, 大學 나름대로. 그래서 좋은 案이 나오면 檢討해서 收斂하는 方向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文化都市, 國際都市 이런 次元에서 世界的인 文化行 事, 이런 것들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指摘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靑少年映畫祭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 業務는

文化觀光局에 意見을 제가 局長한테 직접 傳達을 하고, 내년 도 事業計劃 樹立할 때 어떤 行事의 內容이 되든간에 國際行事를 하는 것이 우리 位相에도 맞고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傳達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鄭水華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鄭水華 委員; 再檢討事業 中에 施行與否를 再檢討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事業, 市民生活 위주 13個 事業과 大規模 投資事業 3個 事業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國家나 企業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무슨 일을, 事業을 着手할 때 國民들이나 企業에 所屬된 職員들이 다 충실하게, 또 희망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企業이 發展을 하려고 보면 자그마한 市民 必需品的인 輕工業製品만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重工業的인 그런 分野에도 長期的인 眼目을 가지고 計劃을 세워서 나가야만 그 企業이 將來的으로 生命이 保障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 施行與否를 再檢討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이 事業들을 보면 民選市長이 들어서기 전에 충분히 檢討가 되어서 이러한 事業들이 우리 서울市の 發展과 市民들의 꿈을 키워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봐서 이러한 計劃들을 세우고 推進해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大規模 投資事業, 財政與件을 고려해서 推進한다고 한 서울市 新廳舍 建立問題, 第3期 地下鐵, 漢江舟運計劃, 이런 것들이 여러번 新聞에도 報道가 되고, 우리 市民들은 그런 것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民選市長이 들어서 이런 좋은 計劃들이 어떤 것은 돈이 없어서, 또 어떤 것은 뒷골목 行政을 한다는 市民生活 위주,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제쳐둔다고 보면 市長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다소 소극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함으로써 3年밖에 남아있지 않는 任期 동안에 과연 우리 市의 發展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는가 하는 疑懼心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2期 地下鐵 관계로 해서도 근 3兆 몇千億원의 負債가 있고, 上水道事業에 負債도 있어서 근 4兆 4,000億 상당의 負債가 있기 때문에 이런 負債로 우리 市議員들도 建議도 하고, 어떻게 對策을 마련할까 여러 가지 計劃들을 세우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財政擴充의 意志를 가지고 이러한 事業들을 하나라도 解決할 그런 意志가 있어야 우리 市民들도 거기에 맞춰서 稅金도 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企劃部署인 企劃室에서 이런 計劃을 樹立함에 있어서 바른 市政企劃團이고 뭐고 다 좋게 서울市를 發展하자고 하는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꼭 다시 한번 再考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企劃室長께서 이 問題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答辯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再檢討事業, 이렇게 죽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봐주시면 좋은 食單 定着이니 衛生業所 等級化니 하는 이런 事業들은 豫算이 들어가는 事業은 전혀 아니고, 이런 것이 飲食店協會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規制나 指導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좀 民間 次元에서도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再檢討하는 事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民間 自律權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로 지금 指摘해 주신 事項 中에는 豫算이 所要 되는 그런 事業들에 대해서 鄭委員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區廳長을 하다가 本廳에 왔습니다만, 제가 江西區廳長을 할 때 그 地域住民들이 空港路邊의 麻谷地區에 130萬坪 논밭이 있습니다.

그것을 開發한다 해서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고나서 이번에 發表에 5大據點 開發計劃이 再檢討되고 留保된 것으로 發表가 되어서 住民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系統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市長님도 어제 答辯에서 말씀을 올렸습시다만, 이것을 완전히 廢止한다든가 保留한다든가 하는 그런 次元이 아니고 아까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 서울 市의 財政與件이 도저히 이것을 밀받침할 수 없고, 이것보다는 市民生活의 피부에 닿는 실질적인 事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 그것이 오래 밀리다보니까 좀 延期되는 期間이 오래이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도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次元입니다. 그러니까 延期……. 아니 한다는 것이 아니라 再檢討라는 뜻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그런 결과다라는 그런 意味로 理解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점은 어제 市長님께서도 분명히 答辯을 통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國家中心街路 造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政府綜合廳舍에서 市廳, 南大門까지 그것을 전부 周邊을 다듬고, 또 光化門에서 政府綜合廳舍까지 이르는 길은 廣場으로 해서 모든 車는 地下로 돌리고 하는 그런 計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事業費가 1兆가 넘습니다. 그런데 1兆가 넘는 事業費를 가지고 과연 거기 廣場을 만드는 것이 市民生活 質 向

상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는 것이냐? 차라리 그 1兆가 넘는 돈을 다른 方向으로, 生活의 質을 높이는 事業으로 轉換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着想이고, 또 그것이 어느 期間이 지나서 豫算도 좀 풍부해지고 또 全般的인 수준도 높아지면 그 事業도 할 것입니다, 이미 計劃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라는 것을 理解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국가 次元에서 해야 될 그런 事業들도 당초 豫算編成할 때 좀 과욕을 갖고 編成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産業構造 調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産業構造 調整을 地方政府 次元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미심쩍은 생각을 가진 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의욕을 갖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豫算 들어가는 事業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도 차제에 整理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예 과욕을 부려서 내놓은 事業도 좀 再檢討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염려해 주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선순위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앞당긴다든가 해서 이 再檢討되는 事業이 전부 廢止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理解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盧載東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盧載東 委員; 제가 會議에 한 時間 늦게 지각을 해서 同僚 委員들한테도 죄송하고 또 나와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하고 그제 양 이틀간에 市政質疑에 관한 問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솔하게 정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企劃 管理室長 傘下의 여러 高級 幹部들은 오랫동안 서울시廳에 勤務를 하시고, 또 대개 개인 企業體나 그룹 會社에 가보더라

도 大 企劃管理室 그러면 會社에서 그래도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엘리트들의 總體集團이거든요. 社會의 전체적인 運營 方向과 프레임을 잡아 나가고, 정말 그 그룹의 死活을 企劃管理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닙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지난 19日 市政質疑를 할 때도 여러분들께서 좀 도전적인 정신과 地方自治時代를 맞아서 자기 革新을 하고, 정말 千百萬 市民을 위해서 우리가 市長을 바로 목에다 태우고 우리가 완전히 參謀陣으로서 이 서울特別市政을 밀고 간다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십사 하는 노파심에서의 말씀도 드렸습시다만, 제가 한 마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 趙淳 市長, 그 분이 아니더라도 民選 自治市長이 3年間 市政을 擔當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고 자기의 經營哲學이나 자기의 市政哲學을 任期內에 實現한다고 하는 것은 꽤 至難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市民이나 우리 市廳에 從事하시는 公務員들이 과연 이 훌륭한 분이 3年 동안에 그야말로 官僚主義時代의 틀을 벗어나서 地方化時代에 서울特別市가 나아갈 수 있는 進路와 方向과 그런 것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놓아주심으로 해서 市民들이 共感하고, 같이 몸담고 있는 市 傘下 公務員들이 士氣 衝天하고 하는 그와 같은 밑자리를 이 3年 동안에 깔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理解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執行過程에서 여러 가지 問題點은 별도로 우리가 짚어보기로 하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市民의 福祉行政, 그 다음에 疎外階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85年度에 美國을 갈 때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아이들을 8名을 뉴욕 J.F.케네디空港까지 에스코트를 좀 해 달라고 해서, 김한규 당시 議員

이 院長으로 계실 때. 제가 美國 나가는 걸음에 이 고아들 8 名을 데리고 J.F.케네디空港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밤에 비행기 안에서 애들 기저귀 다 갈아주고, 우유 다 먹여주고, 물론 스튜어디스들이 도와주지만. 그렇게 하면서 밤잠을 안 자고 뉴욕 空港에 떨어져서 아이들을 흑인 入養機關에다 引導를 하고 가는데 그 中에 세 살 먹은 아이가, 범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애가 흑인 여자가 자기를 덥석 안아가려고 그러니까 제 다리를 붙들면서 아저씨! 하고 울 때 제가 정말 이 아이를 이 異國萬里에다 떨쳐버리고 가는 것이 제 자식을 어디다 遺棄시키고 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비행기에서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疏外階層에 대한 그런 問題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세를 一新해서, 뭔가 뒤집어서 적극적으로 市政을 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要旨는, 이 자리에다 西大門·恩平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保社環境局長所管입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意識轉換도 해 달라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西大門 市立病院 같은 경우도 그것이 분명히 社會福祉施設이요, 정말 후미진 곳에 있는 階層들을 위한 그런 施設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病院이 서고 난 이후에 肺結核患者들이 줄어들고, 病床이 300室, 400室 나돌고 있어요. 새로 가신 院長이 年次的으로 外來患者를 收容을 해서 病院의 事業收益을 높이고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保社環境局長 같으면 한번도 現場에 나가지 않고 그 病院이 老朽化되어 있습니다. 傳染病 專門病院입니다. 外來患者 收容 불가능합니다. 屍體 安置室 12具가 있는데 그것 靈

安室 못 짓습니다, 一言之下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補充質疑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원래 피차에 알기고 싸우면 일이 잘 안 되니까 다음에 理解를 시키도록 하고, 現場訪問을 했을 때 理解를 시키기로 하고, 이런 것이 만약에, 이런 훌륭한 施設이 個人企業, 개인의 所有財産이라고 할 경우에 그것이 赤字運營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赤字運營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企劃管理室長님이 그 病院 院長님으로 가서 야, 이 病院을 赤字에서 黒字 病院으로 돌리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1年이면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비근한 예입니다만 市廳에 관계하고 계시는 高級公務員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도 형식적으로 答辯을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福祉市政을 펼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손이 가야 될 곳이 어디냐 하는 것도 企劃管理室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두번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西大門, 恩平, 麻浦, 龍山, 예를 들면 鐘路區, 中區까지도 해서 이 근처에 있는 모든 市民들이 可樂洞 農水産物都賣市場을 利用을 하고 있다고 그러합니다. 그 복잡한 漢江 다리를 새벽에 건너가서 그 복잡한 漢江다리를 滯症 속에 또 건너와야 된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趙 市長님께서서는 4大 據點에다 農水産物流通센터를 建立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檢討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참 다행스러운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西南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麻浦區 上岩洞地域, 蘭芝島地域에, 아니면 水色에 鐵道廳 敷地가 아직도 놓고 있는 敷地들이 있다고요. 이런 데

다가 우리 特別市에서 정말로 이 西北部地域 우리 서울市民들이 그 交通滯症을 일으켜 가면서 건너갈 것이 아니라 이 地域에도 遊休土地를 都市計劃 變更을 해서 農水産物 畜産團地를 誘致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京仁線鐵道를 利用할 수도 있고 또 安養에서 城山大橋로 올라오는 外廓道路를 利用할 수도 있고 또 幸州大橋도 新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여러분들이 構想을 한번 해 주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西大門, 麻浦, 龍山 이런 쪽, 그 다음에 中區 쪽까지. 그리고 新都市로 形成이 되어 있는 一山, 高陽市까지, 그 市民들이 전부 可樂洞 農水産物市場을 利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京畿道 그 쪽에 있는 高陽市 일대까지도 그런 쪽에 農水産物流通團地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都市機能을 擴大를 하고 交通難을 緩和해 가면서 좋은 位置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企劃管理室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바른 서울特別市를 만들기 위해서 市政 企劃을 하고, 정말로 都市交通問題라든지 이와 같은 施設을 再配置하는 것을 長期的으로 解消할 수 있는 方案이 무엇인지를 한번 再考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알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質疑事項은 아니신 것으로 알고요, 黃仁明 委員님 質疑事項 있으십니까?

○黃仁明 委員; 네.

○委員長 文錫珍; 質疑해 주십시오.

○黃仁明 委員; 黃仁明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아까 報告文件 6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向後

推進計劃에 社會團體用事務室의 有償轉換이라고 이런 項目이 있습니다. 社會團體라는 것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官邊團體가 속해 있는지? 또 서울시에서 有償轉換 事項이 현재 얼마만큼 進陟이 되어 있는지? 어떤 計劃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고, 有償轉換이 아니라 事務室 賃貸를 解除를 해서 서울시나 특히 서울시議會에서 굉장히 空間이 적어서 우리가 힘들고 있습니다. 市나 議會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이 부분을 質疑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金相男 委員도 말씀을 하셨는데, 企劃管理室所管이니까 市立大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市立大學에 合格生을 내면 登錄期間이 통상 3日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는 부분인데 서울시립대학은 예비후보자를 순번대로 즉 냅니다, 발표를 합니다. 그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일단 登錄期間이 끝나게 되면 어떤 方法으로 豫備候補……. 缺員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어떤 方法으로 連絡을 하는지? 또 그 부분이 豫備合格 順位 순서대로 連絡이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市立大學에 대해서 質問을, 要旨를 다시 내겠지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公開를 해서 方法 같은 것도 合格者 名單에 같이 明示해서 오해가 없도록,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關係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答辯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答辯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아까 盧載東 委員께서 市 公務員들의 意識轉換, 意識 改善을 促求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주 적절하신 충고로 생각을 하고 이런 점에 더 留意를 하겠습니다. 저희 市에서도 市長님도 그런 말씀을 몇 차례 하신 바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市政方向이 課長線까지는 침투가 되었는데 그 이하는 아직까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해서 敎育이라든가 管理 監督을 통해서 市政哲學이 末端까지 침투되도록 하라는 그런 指示 말씀도 몇 번 계셨습니다. 저희들 敎育을 통해서 새 時代에 맞는 意識轉換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西大門市立病院의 綜合病院化 問題는 오늘 아침 새정치국민회의 所屬 國會議員님과도 懇談 中에 이것도 建議가 있었습니다. 綜合病院에 대한 全般的인 檢討 때 한번 檢討를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農水産物都賣市場이 可樂洞에 運營되고 있고, 西南圈 아까 說明 올렸고, 北部地域에, 九里市에 저희 서울시가 일부 投資를 하고 京畿道側에서도 投資를 해서 지금 建設 中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計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問題는 제가 産業經濟局에 한번 檢討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黃仁明 委員께서 質疑하신 社會團體 有償轉換 問題는 현재 基本方針은 이미 전에 李會昌總理께서 指示하신 바에 따라서 政府 方針이 確定되어서 市 廳舍나 市가 管理하고 있는 建物, 또 區 廳舍나 區가 管理하고 있는 建物을 無償 使用하고 있는 여러 團體들을 그냥 공짜로 쓰게 할 수 없다 해서 전부 有償으로 轉換하거나 또 事務室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方針을 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또 自由總聯盟 또 어느 경우에는 報勳團體까지, 老人會까지, 뭐 이렇게 다양한 社會團體, 또 社會에서 요즘 말하

는 官邊團體도 들어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7月 31日 현재 12個所, 바르게살기, 새마을, 市友會, 自由總聯盟 등 12個所에 대해서는 有償轉換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도 계속해서 年內에 有償轉換하도록 그렇게 推進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委員長 文錫珍; 지금 答辯하신 內容 中에 우리가 어제 本會 議에서 여기에 대한 答辯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아, 그렇습니까?

○委員長 文錫珍; 그 答辯에 대한 基本的 主潮가 有償으로 轉換하든지 還收하든지 하는 內容이지만, 有償轉換이라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賃貸와 마찬가지로 公開競爭 入札에 의해서 有償으로 轉換한다 하는 이러한 報告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그럼 이것은 생략을…….

○委員長 文錫珍; 혹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이것은 제 所管은 아니고 內務局所管입니다만…….

○委員長 文錫珍;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推進事業에 나와 있기 때문에, 年末까지의 推進事業이라고 하면 확실한 意志를 가지고 推進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7月 31日 현재 어떻다 하는 정도로는 굉장히 미미하고 미약합니다.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12月 末日까지는 還收 및 有償으로 轉換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有償의 轉換은 發表하신 대로 公開競爭入札에 의해서 다른 쪽에서 賃貸를 받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條件으로 해 줘야 된다는 이러한 報告를 들었기 때문에 그 정신에 입각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것으로 같음을 하겠습니다. 그

리고 內務局에서도 8月末까지는 入住團體들로부터 有償轉換을 하거나 또는 還收할 수 있도록 각서를 지금 받는 方向으로 이렇게 지금 推進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확실하게 그것을 하셔야지 12月末까지 마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梁敬淑 委員; 補充質問인데요.

제가 市政質問에서도 그 問題를 舉論했고, 質問을 했지만 그 答辯은 분명히……. 제가 質問했던 內容은, 有償轉換에 초점이 아니라 그 동안에 官邊團體에 問題點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보내라는 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내보내고, 그 團體들은 公開入札에 포함시키지 말고 健全한 社會團體나, 또 賃貸收入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區나 市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른 一般會社나 이런 데에다 公開入札을 통해서 入住를 시켜야지, 지금 현재 大規模의 建物を 차지하고 있는 官邊團體는 당연히 내보내라라고 主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答辯은 내보내는 쪽으로 推進을 하겠다라고 答辯했어요.

그런데 지금 企劃管理室長님께서서는 市政企劃團의 核心멤버 中の 한 분이신데, 지금 벌써 內務局長이 答辯한 內容하고 다르고, 또 意志도 有償轉換에 더 오히려 초점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市政企劃團에 이것이 主要한 懸案이 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官邊團體는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꼭 推進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이것은 市政企劃團 課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梁敬淑 委員; 관계가 없는 것은 알아요.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一般的인 事項입니다. 일반 建物管理次元의 問題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政府의 方針이 그러하고, 그런 方向으로 決定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한 내보낸다 하더라도 入住團體의 그 동안 수년간 占有한 것이라든가, 또 당장에 나갈 곳 없는 團體를 내쫓는다는 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還收보다는 有償賃貸 方向으로 지금 推進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意志는 물론 내보내는 方向으로 推進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市立大學의 登錄期間 3日이 지나고나서 그것이 缺員되었을 때 다음 後順位候補 學生들에 대해서 어떻게 連絡을 취하느냐 하는 이런 問題는 제가 자세한 內容을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市立大學側에 알아서 書面으로 答辯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黃仁明 委員; 네, 제가 書面質疑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이것은 너무 技術的인 事項이고, 大學에 관련된 事項이라서 書面答辯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다른 質疑事項 없으십니까?

(「제가 質疑 하나만…….」하는 委員 있음)

李亮漢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李亮漢 委員;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補充質疑한다고 열을 내서요.

저희들 市의 公社, 事業所 中에서 地下鐵公社는 地下鐵本部 所屬이고, 水道事業所 所屬인 水道에 대한 公社를 轉換할 생각이 없는지? 왜 그러느냐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市에서 가장 결손을 많이 보고 많은 돈을 내주면서 水道하고 地下鐵에서 赤字를 제일 많이 봅니다. 그래서 市長님 말씀하신 經營마

인드적인 立場에서 受益者負擔의 原則과 原價 負擔은 해야 되는 것이, 서울市民도 負擔을 해야 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도물값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內務部에서 수도물값을 統制를 받고 있어요. 그 統制한 價格 問題가 좀 차이가 있고, 또 서울시水道事業本部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企業會計的인 측면이 아니고 財政會計的인 측면에서 土地를 收用한다든지 建物を 지을 때도 一時로 費用處理를 하거든요. 企業會計는 固定資産으로 남아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니까 모든 것을 費用處理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水道……. 原價 計算하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실제 市民이 負擔해……. 저희들이 좋은 수도물을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中水道 開發을 하셔서 中水道는 下水道하고 中水道 開發을 해서 工業用水로 쓰게 하고, 純粹 上水道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이아몬드 生水라든지 무슨 生水を 사먹을 것이 아니라 실지 먹을 수 있는 것을 한다 그러면 企業的인 公社로 轉換시켜 주는 것이 組織面에서 어떤지 한번 研究 檢討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알겠습니다.

○李亮漢 委員; 그리고 제가 이것은 이것하고 관계 없는데, 저희들 決算을 市에서 豫算決算을 언제까지 하십니까? 市에서 決算을 할 때요.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아, 一般會計…….

○李亮漢 委員; 1年度요?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水道?

○李亮漢 委員; 水道 말고요, 우리 一般會計?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年度閉鎖日이 2月末이고요…….

- 李亮漢 委員; 3月 아납니까?
-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3月.
- 李亮漢 委員; 제 생각 같아서는 90日 前에서 120日 前으로 변하는데, 그 전에 정했다하더라도 180日 前에 결산검사를 해서 次年度에……. 지금 會計法上에는 다음다음 年度에 適用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法上에 잘못 되어 있는 것이. 決算 反映이, 결산검사에 대한 反映이. 지금 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다음 年度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決算 會計年度를 늦게 잡으니까 이미 決算을 끝내버렸어요, 그 反映할 機會가 없으니 제 생각 같아서는 120日로 정하되 그 전에 6月末쯤에 決算을 받아서 次年度, 다음 年度 會計 때 決算의 問題點을 反映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年 後에 反映을 합니다, 지금. 決算監査 자체가.
-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지금 年度閉鎖日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으면…….
- 李亮漢 委員; 94年度…….
-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會計年度 閉鎖日이 내년 2月末이고요. 그리고…….
- 李亮漢 委員; 그러니까 지금 94年度 閉鎖日이 2月末 아납니까?
-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금년 2月末이었고…….
- 李亮漢 委員; 94年度가 95年度 2月末에 했지 않습니까?
-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 李亮漢 委員; 그래서 그것을 끌고와서…….
-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그리고 3月에서 5月사이에 決算을 하도록 해서 그 決算 結果가 나오면 그것은 追更에 反映하거나 그 다음해 豫算編成 때 反映할 수가 있습니다.

○李亮漢 委員; 그래왔는데 검사를 언제하느냐 하면 90日 前에 합니까, 지금 우리 하는 것이? 그러니까 90日 前에 하기 때문에 그 監査結果에 대해서 다음해 反映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음 다음 年度에 反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日 정도만 앞으로 당겨준다고 그러면……. 감사를 하는 모든 指針 자체를.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關係法規定에 그것이 정해져 있는 모양인데요, 運用上 調整을 탄력적으로 運營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李亮漢 委員; 그러니까 94年度 指摘事項이 96年度 豫算에 反映이 되어야 되는데 反映이 안 되고 제대로 하면 97年度에 反映하게 되어 있다고, 法대로 하게 되면.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決算監査를 6月末부터 시작……. 6월에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委員長 文錫珍; 그 결산검사에 대해서 저도 追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市議會에서 決算檢査를 하고 豫算에 反映하기 위해서는 李亮漢 委員님의 見解대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推進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委員長 文錫珍; 그래서 현재처럼 決算檢査가 豫算案 다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時點에서 終結되어져서는 실질적으로 決算檢査의 意味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분명하게 약속을 하셔서 우리가 法令 制定이 늦는다고 하면 運營的인 측면에서라도 豫算案 着手하기 전에 決算檢査는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다음 年度에 連繫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알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약속을 해 주십시오, 運營的인 측면에서라도. 그것은 약속을 해 주셔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決算檢査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金勝建 委員; 잠깐, 제가 이 規定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연 條例나 이런 制約條件이 있는지, 아니면 執行部가 하겠다는 意思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일단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것에 대한 것과…….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地方財政法에 決算檢査에 관한 規定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勝建 委員; 그럼 條例는 아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아니, 그래서 運營上 그것을 앞당기고 해서 가능한한 다음해 豫算編成 때 決算檢査 결과가 反映될 수 있는 方向으로 運營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協助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協助 자체를 약속을 하십시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委員長 文錫珍; 약속을 해야 내년도부터 뭔가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委員長 文錫珍; 저희가 꼭 法을 適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運營하는 사람 妙에 달려 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決算檢査가 豫算案 編成되기 전에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質疑事項 있으십니까?

그러면 10分間 停會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16分 會議中止)

(16時 37分 繼續開議)

○委員長 文錫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아까 質疑 도중에 저희가 停會를 잠시 가졌습니다. 質疑 계속 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敬淑 委員 質疑하십시오.

○梁敬淑 委員; 아까 企劃管理室長께서 서울 特別法 관련해서 이번 定期國會에 上程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上程 案件이 많을 것 같아서 우리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14代 國會가 마지막 定期國會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上程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總選 局面으로 넘어가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르지만 上程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못할 것 같더라는 부분에 더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또 한편으로 이런 答辯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서울 市長이 너무 안이었다라는 그런 評價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市政企劃團의 긍정적인 면을 초점으로 본다면 진작 7月 이라든지, 7月 中旬만이라도 이런 것을 構成해서 이런 計劃이 있었다면, 推進을 했었다면 이번 定期國會에 上程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8月末이 되어서야 이것을 構成해서 9월에 그것을 만들어서 上程을 시키지도 못할 것 같다,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면 분명히 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定期國會에 上

程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못한다라면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質問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組織診斷을 하고 있고, 또 組織 改編方向을 짜고 있다고 아까 答辯하셨는데요, 時間이 너무 없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런 부분들이 進行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점점 자꾸만 時期를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스럽고요. 市政企劃團이 지금 組織의 改革案 中에서 이것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포함이되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組織改編을, 어차피 組織改編案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問題와 論難이 되어 왔던, 지금 현재는 區廳의 固有權限처럼 되어 있는 統班長制度 있지요, 統班長制度에 대한 것도 포함을 해서 組織改革에 대한 改善方向을 만들고 있는지? 저의 생각 같아서는 統班長制度를 아예 없애고 住民自治組織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캠페인 같은 것을 벌이는 것이 民選市長 때에 걸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改善方向을 만들고 있다면 참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반드시 이부분을 檢討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答辯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質問하겠습니다.

豫算 財政運用에 대한 制度改善에 대한 問題인데요, 서울시는 지난번에 報道나 또는 發表를 통해서 國家가 負擔해야 할 公立學校敎員의 給與費 등 國家職公務員에 대한 일방적인 負擔을 拒否하거나 是正을 要求하겠다고 發表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自治性を 높이고 中央政府에 대해 불합리하게

市費를 支出하는 것에 대한 問題를 좀 提起를 했었는데요,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の 制定으로 73年度부터 서울市만 321個 公立 中·高校 敎員들의 俸給 全額을 지금 負擔을 하고 있고, 95年度만 해도 2,200億원 정도를 支援하고 있다고 報告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豫算을 負擔을 안하겠다거나 拒否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豫算編成 中에 있는 내년 豫算에서는 빠졌는지 묻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文化財管理法에 따라서 서울市內 史蹟地나 國寶, 보물 등의 維持 管理 費用을 서울市가 대부분 負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慶熙宮址나 또 風納土城이나 北漢山城 등 史蹟地 復元費用으로 74億원 정도를 支出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내년 豫算의 編成에 포함을, 繼續費로서 포함을 하고 있는지, 내년 豫算에서는 뺐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이것 뿐만 아니라 서울 警察廳 技能職 人件費, 올해 策定한 9億 6,000萬원 支出했고, 交通安全團束經費 74億원을 支出하고 있는데, 警察을 內務部에 속해 있는 機關입니다. 그런데 서울 市民들의 稅費로 警察의 어떤 行政에 들어가는 費用을 負擔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서울 市民들로서는 불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또 서울 市民이 內國稅 總額의 45% 정도를 負擔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國家로부터 받는 것은, 이 부분은 서울市 利己主義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餘地는 좀 있습니다만, 地方交付稅가 한 15億원 정도 되고, 補助金を 합해서 한 몇백억 정도를 받는 것이 中央政府로부터 서울市가 받는 것의 고작인데, 서울市는 부당하게 中央政府에 수천억원의 豫算들을 내야 되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예를 들은 몇 가지 事案에 대해서 서울시가 내년 豫算에 어떻게 이것을……. 編成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줄 아는데요, 어떻게 反映을 하고 있는지? 뺐는지? 또 이런 過程에서 發生할 수 있는, 中央政府와의 마찰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中央政府는 당연히 지금까지 서울시가 이러한 豫算들을 支援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支援하라고 要求를 할 것이고, 서울시는 拒否하겠단다고 發表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市民들한테 한 약속을 어떠한 形態와 方式으로 지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마찰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解消를 하고 싸워 나갈 것인지에 대한 答辯도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6年度 서울시 豫算編成 方向에서 低所得 零細階層 및 疏外되고 脆弱한 市民의 福祉를 增進하는 그런 事業으로 學校給食 實施가 지금 例示되었습니다. 서울시는 來年末부터 公立 國民學校 전체에 學校給食을 施行하고, 給食 設置費하고 給食補助에 필요한 豫算을 教育廳에 支援하는 方針을 세웠고, 서울시教育廳도 이에 副應해서 내년도 教育費特別會計에 學校給食費를 編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教育費 支援은 國家 豫算으로 해야 한다 해서 內務部方針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地方自治團體와 이 給食問題를 가지고 지금 현재도 상당히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내무부하고 마찰을 빚지 않으면서, 또 豫算項目을 轉用이나 移越을 뛰어넘어서 하지 않는 方式으로 서울시가 給食 補助를 할 수 있는 그런 方案과 마찰을 어떻게 解消할 수 있을 것인지 좀 묻고 싶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內務部가 提示했을 때? 그 부분을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答辯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文錫珍; 國家事務 부분에 대한 우리 서울시가負擔하고 있는 豫算事項, 지난번에 한번 서울시에서 그 事項을 發表를 했었고, 또 저의 議會에서도 한번 記者會見을 통해서 서울시가負擔하고 있는 國家事務經費 이 부분이 앞으로 是正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었는데, 지금 다시 質疑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答辯드리겠습니다.

特別法 上程問題에 대해서 梁敬淑 委員께서 많은 관심과 또 이에 대한 支援을 해 주시려는 마음 쓰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은 그런 객관적인 與件을 말씀드려서 實務的인 판단이 그러하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作業을 늦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 作業은 계속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채널을 통해서 共感帶를 擴散하는 그런 內容으로 進行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聲援을 부탁드립니다.

組織改編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統班組織은 통상적으로 住民組織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行政組織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檢討하고 있는 內容은 서울시 行政組織을 새로운 行政需要에 맞도록 強化되어야 할 부분, 또 機能이 쇠퇴된 부분은 어느 정도 整理를 해야 될 部署,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組織改編案을 짜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統班組織이 組織改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統班組織 問題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立場은 아닙니다. 政府의 地方行政의 全般的인 住民管理 體系와 관련된 事項으로서 현재 內務局에서 管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統班改善을 위한 檢討

를 하고 있는지의 與否를 한번 確認하고, 그 問題에 대해서 銳意傳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豫算制度 運營과 關係해서, 教育費 支援問題와 關係해서 國·公立 中·高等學校 敎員 俸給에 대해서는 서울市가 負擔하지 않겠다고 公式 發表한 事項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關係法에 의해서 서울市가 100% 俸給의 全額을 負擔하고 또 釜山은 50%, 이렇게 負擔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런 發表를 한 적은 없지만 이것이 우리 財政에 미치는 負擔이라든가 또 敎員에 대한 俸給 負擔을 市費 豫算으로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뜻을 우리가 政府에 대해서 수차례 직접 文書로 建議한 바가 있습니다. 94年度에도 1次 建議를 했고 95年度에도, 금년도에도 지난 6月 7日에 正式으로 建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法이 改正되기 전에는 저희가 豫算編成을 하면서 그것을 빠뜨릴 수 없는 그런 立場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參考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大統領께서 教育財政을 GNP의 5%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그런 發表를 하시면서 財經院이 중심이 되어서 그를 위해서 財源 調達方案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 財源 調達方案을 마련한 것을 보면, 현재 다른 市·道는 負擔을 하고 있지 않는데 다른 市·道까지, 釜山市 이외의 市·道까지 20%인가 그 수준의 俸給을 地方費로 負擔하도록 그렇게 計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을 때려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立場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參考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學校給食 問題는 지난번에 大田의 儒城區廳長이 公約을 해서 區廳長이 되고 나서 儒城區 管內에 있는 全學校 給食施設費를 5億원인가 策定을 해서 그것이 內務部에서

制動이 걸렸습니다. 教育自治인데 어떻게 區에서 다 支援해 줄 수 있느냐 해서 그것이 論爭이 붙어서 政府에서, 法制處에서 有權解釋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教育部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解釋을 하고 있기 때문에, 內務部에서는 아니다라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措置를 하겠다 해서 일단 그 問題에 대해서는 內務部側에서는 否定的인 視角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울市에서는 教育費를 직접 支援하는 것이 아니고 一般 福祉事業 次元에서 學校도 地域에 따라서 아주 부유한 村의 學校도 있고 低所得層 地域에 있는 學校도 있습니다. 그래서 低所得地域의 學父母 負擔을 줄인다는 뜻에서 간접적인 支援을 하는 方式으로 이 問題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教育廳에 轉出하는 轉出金이 아닌 低所得 學父母의 負擔을 줄인다는 低所得層 支援 概念으로 해서 給食施設을 간접 支援하려고 豫算編成을 할 생각입니다. 給食施設입니다.

○盧載東 委員; 給食費는 서울市가…….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給食費는 負擔하는 것이 없습니다. 施設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지금 室長께서 答辯하신 內容 中에 國家事務에 대한 부분, 물론 公立敎員에 대한 給與部分에 대해서는 어차피 어느 쪽에서든, 國家든 서울市든 俸給을 당연히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事項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아까 質疑한 內容에는 금년도 95年度 豫算事業 中에 보면 그러한 事業이 한 2,472億원 中에서 2,200億원이 國·公立學校 敎員 俸給이고, 文化財 復元이 한 100億원 됩니다, 96億 2,300萬원인데. 그래서…….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지금 말씀이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委員長 文錫珍;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끝나지 않아서 제가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文化財 補修費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國費部分에 대해서는 國費를 要求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政府로부터 支援內示 通報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國費 負擔分 外에 거기에 따른 地方費 負擔分이 있습니다. 그래서 地方費 負擔分만을 우선 計上을 하고, 계속해서 政府에 대해서 國費部分에 대한 支援 要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警察과 관련된 豫算編成 問題입니다. 이것은 道路交通과 관련된 安全施設面, 이런 것들은 地方自治團體 負擔으로 設置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道路의 標識板이라든가. 信號機라든가 이런 것들이 法的으로 地方自治團體에 移管이 되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本會議 때도 이런 것들 때문에 警察廳 中에서 交通警察 業務는 地方自治團體로 移管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質問도 계셨습니다만, 그런 것은 나중에 檢討가 되더라도 우선 이 問題는 저희들이 負擔을 하고 있고, 그 외에 警察과 관련된 事業費 中에서 地方費로 負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地方自治團體가 管內 住民들의 生命, 財產 安全을 포괄적으로 責任진다는 그런 次元에서 事業의 內容을 分析을 해서 그 方向에 합당한 事業은 計上을 하는 것이, 그것도 결국은 住民 福祉에 해당된다는 그런 뜻으로 編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補充質疑하겠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네, 補充質疑하십시오.

○梁敬淑 委員; 豫算 財政運用 制度改善과 관련해서 法이 改正되기 전에는 지금 현재 제가 提起한 教育公務員이나 警察職公務員들이 서울 市民들을 위해서 많은 奉仕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警察廳 技能職 人件費라든지 交通安全團束經費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事案에 따라서 審査 檢討해서 그것을 豫算에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를 檢討하신다 그러셨는데,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 市民들은 國稅의 45% 정도를 市民들이 負擔하고 있습니다. 國稅 전체의 반에 가까운 金額을 서울 市民들이 내고 있는데 지금 內務部 傘下에 있는 警察에까지 또 다시 서울시費를 支出해야 된다는 라는 것은 전혀 합당한 答辯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思考의 發想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말씀드리겠습니다.

국·公立 中高等學校의 敎員에 대한 俸給問題는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에, 이에 明示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을 改正을 해야만 서울시가 豫算 負擔을 免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說明에서 빠뜨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梁敬淑 委員께서 指摘하신 警察公務員의 俸給問題는 警察에 대한 俸給은 아닙니다. 派出所 單位로 防犯員이 있습니다. 그 防犯員 問題가 과거에 防犯委員會를 構成을 해서 地域有志들이 住民들로부터 돈을 거두어서 運營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民願을 많이 샀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쓰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防犯委員 몇 분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疑問과 실제로 그런 데에 관련된 不條理도 있었던 것으로 報道가 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制度改革 次元에서 論議한 결과, 이 防犯員들을 區廳에 技能職으로 發令을 내고 사실상 防犯員으로 勤務하도록 그렇게 制度改善이 되었습니다. 89年度에 그렇게 改正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9年度에 각 區廳에 技能職으로 任命을 하고, 실지로는 防犯員 機能은 派出所 單位로 勤務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區廳에서 區費로 負擔을 하고 있습니다. 防犯하는 活動 자체가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는 그런 次元의 일이기 때문에 住民 福祉 次元에서 一線 綜合行政機關에서 負擔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89년에 制度改善이 되어서 그 이후에 그렇게 運營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防犯員이 缺員이 되면 自然的으로 그 定員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防犯員이 맨 마지막에 한 사람도 없게 되면 그때부터는 防犯員制度가 없어지고 地方費 負擔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防犯員을 없애는 方向으로 制度가 改善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技能職이 58歲 이상되거나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면 그 定員이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防犯員이 없어지기 때문에 問題는 解決되는 方向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지금 防犯에 대한 얘기하셨는데, 防犯에 대한 人件費 및 運營費가 444億원이나 됩니다, 금년도 豫算에. 그러니까 간단히 防犯이 없어지면 豫算이 없어진다, 얘기할 事項이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아니, 防犯員이 그렇게 없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定員이.

○委員長 文錫珍; 그것 언제 없어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停年退職하기 전까지는 없어질 制度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그저 質問에 答辯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아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아니,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다른 措置를 취할 수가 없는 立場이기 때문에 經緯를 제가 說明을 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과거의 會議錄을 보면 94年度 行政監査에서도 指摘을 했습니다. 그 때 보면 어떤 事項이 있느냐 하면, 免許試驗場에 派遣된 서울시 地方職·專門職 8名을 서울시로 復歸시켜라, 이런 식의 監査意見이 나와 있어요, 行政監査에서. 그리고 그 당시의 會議錄에 보면 防犯, 警察에 대한 市費 支援도 再考하라 이렇게 表現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4年度에도 이미 거기에 대해서 한번 論議가 되고, 또 95年度에 와서 똑같은 內容이 論議가 되면서 答辯만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의회가 있을 存在理由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 制度上의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議會의 存在理由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舉論되었던 問題들은 분명하게 금년도에 오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금년도에 어떤 問題가 指摘이 되면 내년도에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오고 改革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內容이 아니고 저희들의 초점을 봤을 때 公立 敎員에 대한 것은 어떤 形態로든 支援이 되어야 되겠지만 警察部分에 대한 問題는 情緒가 다릅니다.

敎員에 대한 俸給 支援과 警察이나 防犯에 대한 運營費나 防

犯人件費에 대한 支援, 또 우리 서울시가 負擔해야 되지 않을 國家事務에 대한 支援은 情緒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講究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答辯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國家事務에 대해서 서울시가 負擔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公立 敎員에 대해서 그런 建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종합적으로 制度改善 次元에서 계속해서 國家에 대한 負擔 要求라든가 또 關係法令의 改正作業이라든가 이것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免許試驗場에 관련된 그런 人件費는 이미 解決이 되어서 政府에서 94年度부터 負擔하도록 되어서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94年度부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렇습니다.

○梁敬淑 委員; 딱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國家事務에 대한 서울시가 負擔하고 있는 負擔 要求를 점점 줄여 나가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아까 建議書 두 번 정도 올린 것 가지고 그것을 고쳐나가겠다는 意志의 表現으로 보기에 너무 미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中央政府하고 아까 한편으로는 協力を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싸워야 된다는 면에서 서울시가 정말 다시 태어나려고 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改善을 하려는 意志를 보여줘야 됩니다.

報道에는 이것 是正要求를 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報道를 하셨어요, 서울시에서 報道 要請을 했는지 아니면 記者가 가서

取材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서 市民들은 아, 市民의 負擔이 상당히 줄어들겠구나라는 그런 期待를 갖도록 만들고서 그 동안에 몇 달 동안에 建議書 두번 정도 보낸 것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對處하기를 促求합니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알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金勝建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金勝建 委員; 質疑하고 議事進行發言하고 같이 섞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의 資料를 제가 정확히 안 갖고 있는데, 제가 新聞記事를 본 것에 의하면 그 問題가, 우리 同僚委員 한분이 市 教育費 問題가 얘기가 되어서 바로 지금 李海瓚 政務副市長이 말씀하시기를 國家에서, 國家 中央政府에서 받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서울市에 損害가 나는 수가 있다 하고 제 기억에는 그렇게 記事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要求하는 것을 다음번 臨時會 때 李海瓚 政務副市長……. 제 기억이 맞다면 과연 우리가 中央政府하고 이것하고 損益 計算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그것을 報告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企劃管理室長님을 비롯해서 여러 市廳 公務員들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 물론 저희가 議會이기 때문에 議會에 대해서 어떤 議員들의 말씀이나 이런 것을 敬청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의 어떤 것을 가지고, 市政 方向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감이 듭니다.

어떤 問題가 있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行政을 擔當하는 것은 조그만 區廳이든 洞이든 아니면 行政首班이 되는 大統領이든 간에 行政의 속성이라는 것은 安定性에 있습니다. 組織

이라는 것은 安定性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리고 恒久性이 保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安定性과 恒久性이, 그 組織員들이 아무리 깨어있다손치더라도 이 組織이 변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이노베이션하고 뭐하다 그래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千百萬의 市政을 擔當하고 있는 서울 市廳 趙淳 市長님 이하 市長은 千百萬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大韓民國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즉시즉시 어떤 현상들이 마치 구멍가게에서 딱지 사듯이, 딱지 샀다가 구슬로 바꾸었다 하는 식의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것들 中에서 어떤 근본 속성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原則問題에 대한 表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問題는 지금 저희 委員長께서 會議進行을 하시면서 委員長님도 委員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防犯委員 말씀이 나왔습니다. 저도 選舉 때 野黨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 官邊團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도 被害意識이 심합니다.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防犯委員에 대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技能職公務員으로 區廳에 이미 法에 되어 있다면, 저희는 지금 革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法에 되어 있어서,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時間이 지나감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消滅되겠다 하는 原則이 서 있으면 그것에 따라야 됩니다.

아니면 法을 改正을 해서 防犯委員들이 89年度라고 그랬나

요, 팔십몇년도에 一般 區廳의 技能職으로 됐는데, 그 때 했던 것이 다 無效다 하는 遡及立法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저는 누구보다도 아직 나이도 어리고, 누구보다도 서울시가 改革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어느 근본이나 어떤 基礎 없이 전체를 바꾸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 會議에 앉아 있으면서 企劃管理室長님 이하……. 제 느낌입니다, 이것. 제가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企劃管理室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同僚委員, 先輩委員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 市廳의 中心部를 차지 하는 企劃部署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엇이, 어떤 것이 原則이고, 어떤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철저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金勝建 委員 얘기하신 것 中에 저희가 防犯員制度나 法에 대한 問題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豫算에 대한 問題인데,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法上 서울시가 負擔해야 되는 이런 豫算이 있습니다. 그러한 豫算이 바로 公立 敎員에 대한 俸給하고 文化財 管理費用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法的인 改正이 없으면 안 되는 事項이기 때문에 그것은 法的인 檢討事項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指摘한 防犯이나 警察의 運營經費 이런 부분은 法上 우리가 負擔해야 될 費用이 아니고 慣行上 서울시가 負擔해 왔던 經費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防犯員制度를 없애자는 그런 意味가 아니라 防犯員制度에 대한 豫算의 받침을 서울시가 負擔하는

것이 아니라 國家에서 負擔하는 것이 옳다는 方向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行여라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金相男 委員; 企劃管理室長님, 그 防犯隊員에게 나가는 給與가 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慣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그것은 우리 각 區廳에 定員으로 技能職이 있지 않습니까, 그 技能職 定員으로 되어 있어서 技能職으로 任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任用된 데에서 俸給이 나가는 것입니다, 區廳에서.

○金相男 委員; 區廳에서 나가면, 그러면 그것은 그 制度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더 이상 增員이나 運營은 안하고 앞으로 자연 減員이 되면 그대로 없어진다고 그런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렇습니다.

○金相男 委員; 그러니까 定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月給으로 나간다 그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렇습니다.

○金相男 委員; 그럼 그 사람들을 解雇할 수 있는 根據는 없습니까, 없앨 수 있는 根據는?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解雇는 그 區廳에서, 公務員이기 때문에, 雇用員도. 公務員法에 規定된 지켜야 될 義務라든가 이런 것들을 違反했을 경우에 그 規定에 따라서 解任이나 懲戒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相男 委員;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왜냐하면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확실히 하나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執行部에서도 확실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확실히 밝혀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오해가 생깁니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公務員이기 때문에 그것은…….

○李亮漢 委員;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생겼느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防犯委員이 각자 집에서 防犯委員이 나왔습니다, 집집마다.

89年度 이전에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몇 사람씩 防犯을 했다고, 지금. 그리고 지금 車를 빌려서라도 똥똥거리고, 또 사람이 모자라서 지금은 自律防犯을 한다고, 지금 현재. 防犯委員 돈 안 주면 步哨 설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서울 市內 지금 현재. 10年 前, 20年 前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生命을 保護해 준다고 그러면 더 많이 뽑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없애지 말고.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敎員 俸給, 내 새끼 서울市에서 공부 가르치면서 왜 돈 안 주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누가 준다 말이에요? 돈 안 주면 大韓民國 交付金을 안 줍니다, 서울市 交付金을 잘라 먹어요. 豫算은 전체적인 豫算이기 때문에, 우리가 細部的으로 자르겠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가져가보라 이거예요. 지금 담배消費稅를 敎育廳에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敎育廳에 나갑니다.

○李亮漢 委員; 거기에 대한 釜山市는 거의 50%를 주지 않고 30%를 주지요, 他道는 안 줍니다. 그것은 均衡發展을 위해서 國家가 임의로 豫算을 주물럭거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려고 하면 國會에서 할입니다, 그것은. 法 제정 얘기는. 우리는 우리 서울 市民이 사는 형편이 防犯이라든지, 敎育問題에 대해서는 安全하고, 우리 애들이 學校에 잘 다닐 때 뒷골

목에 요새 여자 강패도 있고 남자 강패도 있어요, 골목에 다니면서. 돈 터는 아이들, 또 본드 마시고. 이려고 애들 學校를 잘 갔다 오는데 課外授業받다 오면 틀린 애들 많은데 防犯이 있어서 내 자식이 편안하게 안 당하고 오는 이런 社會가 福祉社會가 되는 것이지, 防犯 없애버리고 警察 한 몇 名 갖고, 派出所에 가면 다섯 名 있어요. 다섯 名이 밤새도록 해도 지켜 주지 않아요. 警察의 中立性을 保障하고 選舉에서 與野의 색채가 없는 것 그것을 따질 뿐이지 防犯隊員은 政治家가 아니고 黨員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선생님이 俸給을 많이 줘야 잘 가르칩니다.

선생님 俸給 안 주고……. 지금 私立學校 이렇습니다. 私立學校 公立化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워낙 財政問題……. 國民學校 대개 中·高等學校는……. 大學은 장사가 돼요, 大學은 뽑아 장사가 돼는데, 中·高等學校는 國家가 맡아라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맡아요, 서울市가 맡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맡아요? 國家에서 안 맡아 줍니다. 지금 中東高等學校를 三星이 맡으니까 돈 10원도 안 들어요. 財閥會社에서 맡아서 그 學生들 잘 키우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지. 防犯委員 없애고 敎員月給 작게 주고 내 아이들 어떻게 공부시킬 것입니까?

○委員長 文錫珍; 李亮漢 委員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들이 오늘…….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잠깐만요. 오늘 討議된 內容 中에 잠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業務報告받으면서 바른 市政企劃團이라든지 또 서울特別法 制定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討議할 때 그 根底에 있는 정신은 뭐냐하면, 서울의 自治權을 強化하자

는 內容에 있습니다. 그래서 豫算에 대한 것도 그러한 정신에서 지금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를테면 敎員에게나 또 防犯員들에게 給與 주지 말자는 意味가 아니고, 그러한 問題를 指摘 함으로써 과연 서울 市가 어떻게 하면 좀더 財政을 효율적으로 運營할 수 있고, 또한 서울의 自治權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方向에서 檢討된 事項들이지, 행여라도 敎員 俸給 안 주고, 아니면 防犯員 俸給 안 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指摘할 수 있는 것은 法上 그렇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줘야 하는데, 우리는 좀더 이러한 부분을 指摘함으로써 國家로부터 서울의 自治權을 높이자 하는 것이 問題의 초점이기 때문에 다른 委員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議事進行發言 좀 하겠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네, 다른 質疑 있으시면 하시…….

○李延義 委員; 아니, 다른 意見 말고 議事進行發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企劃團이라든가 또 特別法 制定問題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指摘하고 넘어갈 정도의 時間的 여유라든가, 사실 事案으로 봐서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충분한 檢討와 研究해서 書面質疑 내지는 建議를 하기로 하고, 오늘 時間關係上 本 懸案에 대해서는 質疑를 마치고, 우리가 또 條例改正案도 있고 또 小委員會 問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칠 것을 提案합니다.

○委員長 文錫珍; 金洪奎 委員님, 관참겠습니까?

○金洪奎 委員; 네, 좋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다른 意見事項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業務報告에 대한 質疑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2.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提出)

3.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提出)

(17時 15分)

○委員長 文錫珍;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一括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서울 特別市長을 代理해서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먼저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改正條例案은 政策輔佐官 5名을 定員으로 하고, 專門職公務員 293名을 定員으로 新規 策定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調整內容을 말씀드리면, 政策輔佐官은 自治區의 區廳長 直選에 따른 剩餘人力을 효율적으로 活用하기 위해서 重要 施策開發과 市政 全般에 대한 補佐業務를 遂行하며, 5名 中 行政職 2級 3名과 3級 1名은 96年 6月 30日까지, 行政職 2級 1名은 96年 12月 31日까지 個人別 停年을 期限으로 하는 限時的인 定員의 增員입니다. 그리고 專門職公務員은, 정원으로 新規 策定하는 것은 각 室·課에서 契約 採用하여 研究, 技術 등 專門業務를 遂行하던 契約公務員을 定員으로 策定함으로

써 人力管理의 걱정성과 業務의 효율성을 圖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議會事務處 定員의 總數를 新規로 規定한 것은 地方自治團體의 行政機構와 定員基準等에 關한 規程의 改正에 따른 後續措置로써, 議會事務處의 地方公務員 定員의 總數 및 職級別 定員은 現行대로 議會事務處設置條例에 規定하되, 그 總數만을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에 함께 規定해서 總括 管理하기 위한 것입니다.

附則으로 서울 特別市議會事務處設置條例를 改正하고자 하는 것은 議會事務處의 專門職公務員 3名에 대한 定員 策定에 따른 定員입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이 改正條例案은 建設技術管理法施行令이 改正 公布됨에 따라서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의 審議對象이 30億원 이상 200億원 미만에서 30億원 이상 모든 建設工事로 확대되어 審議委員의 數와 委員會의 構成 運營에 關한 事項을 일부 變更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의 關聯規定을 法令에 맞도록 改正 하려는 것입니다.

改正條例案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서울시建設技術審議委員會 委員의 數를 150人 이내에서 250人 이내로 變更하고, 建設工事의 基本計劃을 完了한 때에 서울시建設技術審議委員會에 審議 要請하던 것을 設計用役의 契約 完了日 2月 前에 要請하도록 하며, 서울시建設技術審議委員會의 審議時 필요한 技術檢討를 建設技術研究機關 및 關係機關에만 의뢰하던 것을 關係專門家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錫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를 해 주십시오.

○專門委員 安錫洙; 專門委員 安錫洙입니다.

먼저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書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의 主要內容은, 自治區 區廳長 直選에 따른 剩餘人力의 효율적 活用을 위하여 施策開發과 執行機能을 遂行하는 政策輔佐官制를 施行하고, 議會事務處 定員의 總數를 정하며, 豫算으로 採用 契約後 定員 外 별도로 管理하던 專門職公務員 293名을 定員으로 策定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議會事務處 定員 總數 插入 規定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大統領令인 地方自治團體의行政機構와定員基準等에關한規程은 地方自治法 第102條 및 第103條의 規定 즉, 地方自治法 第6章 執行機關에 관한 規定에 의거, 地方自治團體의行政機構의 組織 및 運營에 관한 대강과 地方公務員의 定員의 基準 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하는 法令인 만큼 地方自治法 第5章 地方議會 關聯規定인 제82條와 第83條에 의거 設置된 議會事務處 機構와 定員을 地方自治法 下位法令인 地方自治團體의行政機構와定員基準等에關한規程에 插入한 것은 다소 質問의 餘地가 있다고 생각되나, 서울市의 本廳, 直屬機關, 事業所의 職級別 定員은 地方公務員定員規則으로 規定하는데 반하여 議會事務處의 職級別 定員은 議會事務處設置條例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議會事務處 定員 總

數를 地方公務員定員條例에 規定는 것은 議會事務處設置條例  
上의 定員을 地方公務員定員條例에 形式上 規定하는 것에 불  
과하므로 별도 問題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專門職公務員 定員 策定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地方自治團體 豫算으로 任意契約 採用해 오던 專門職公務員  
을 定員으로 策定하는 것은 무분별한 專門職公務員 採用 擴  
大防止 次元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 附則에 市長을 補佐하는 政策輔佐官 5名을 限時定  
員으로 두는 것은 一般職公務員의 停年 保障을 하기 위한 것  
이며, 附則으로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設置條例를 改正하는 것  
은 현재 議會事務處의 市議會報 編輯業務를 專擔하는 專門職  
公務員 3名의 定員 策定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書 2쪽이 되겠습니  
다.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의 主要內容  
은, 建設技術審議委員會 委員의 數를 150人에서 250人 이내  
로 擴大하고, 建設工事의 基本設計를 完了한 때에 委員會에  
建設技術 審議 要請하던 것을 設計用役의 契約完了日, 用役契  
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設計完了日 2個月 前에 要請토  
록 하며, 委員會 審議時 필요한 技術檢討를 建設技術研究機關  
및 關係機關 外에 關係專門家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改正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建設技術審議委員 增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建設技術審議委員 數를 150人 이내에서 250人 이내로 增員  
하는 것은 建設技術管理法施行令 第19條에 기타 市·道와는  
달리 서울 特別市の 경우에는 250人 이내의 委員으로 委員會

를 構成할 수 있도록 規定되어 있어 法上 瑕疵는 없으며, 時代 環境變化에 따라 施設物 維持 管理, 情報處理 등 새로운 分野의 專門家를 新規 委囑委員으로 委囑하는 것은 충실한 建設技術 審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關係專門家の 技術檢討 의뢰 根據規定 新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建設技術審議時 필요한 技術檢討를 建設技術研究機關 및 關係機關에게만 의뢰하던 것을 關係專門家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專門家の 意見을 직접 듣고 時間節約 次元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便宜主義的으로 利用될 우려가 있으므로 關係專門家에게만 의뢰할 경우에는 加급적 특수한 경우에 限定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錫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案件을 효율적으로 處理하기 위해서 각 案件別로 分離해서 審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 條例案을 審議하겠습니다.

同 案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勝建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金勝建 委員;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財務經濟委員會 專門委員 檢討報告書에도 제가 지금 의문시하는 것과 같이나왔는데, "地方自治法 第5章 地方議會 關聯規定인 第82條와 第83條에 의거 設置된 議會事務處 機

構와 定員은 地方自治法 下位法令인 地方自治團體의 行政機構와 定員基準等에 關한 規程 등에 插入한 것은 다소 質問의 餘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企劃管理室에서, 執行部에서 보기에 아무런 法 節次上의 問題가 없습니까? 없다면…….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저희들로서는 전혀 問題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總數로만 總括 管理하기 위해서 規定하는 것이고, 이 전체 條例는 그냥 두는 것이고…….

○金勝建 委員; 글쎄, 法的인 問題가 없다면 저는 좋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다른 質疑事項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요」하는 委員 있음)

李延義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李延義 委員; 5名の 行政職 2級 3名과 3級 1名은 96年 6月 30日까지, 行政職 2級 1名은 96年 12月 31日까지 個人別 停年을 期限하는 限時的 定員의 增員이라고 했습니다. 遊休人力を 管理하는 次元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현재?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 아까 提案說明에서 報告를 드렸습니다만 自治團體長 選舉로 해서 既存 區廳長의 人力이 좀 남아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의 서울시뿐 아니고 全國的인 현상으로써 內務部에서도 이렇게 定員의 管理로 全國的으로 전부 政策輔佐官制를 活用을 해서 公務員의 停年을 保障해 주기 위한 措置입니다. 그러니까 그 定員 자체도 限時로 그 사람 停年까지만 정했습니다. 그 점을 理解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상으로 議事日程 第2項에 대한 質疑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서울 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委員長 文錫珍;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審議하겠습니다.

同 案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서울 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委員長 文錫珍; 다른 특별한 事項이 없기 때문에 일단 議事日程은 다 마친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긴 時間동안 企劃管理室長님 또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 오랜 時間 동안 質疑와 答辯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도 오늘 小委員會가 또 準備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마라톤 會議를 해야 될 立場에 처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오늘 計劃된 小委員會이니까 參與해서 진지하게 討議를 할 수 있도록 會議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進行할테니까 協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第80回 서울 特別市議會 臨時會 第1次 財務經濟委員會를 모두 마치고 第2次 財務經濟委員會 會議는 9月 22日 午後 2時에 開議됨을 알려드립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29分 散會)

---

○出席委員

文錫珍 鄭水華 李亮漢 金廣洵  
金信浩 金洪奎 白南善 梁敬淑  
李延義 黃仁明 金相男 金勝建  
盧載東 朴南植 金勝子

○專門委員

安錫洙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 都明正